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중국경제의 성장둔화가 한국의 對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Korea's Exports to China on Growth
Slowdown of China Economic

濟州大學校 大學院

貿易學科

解 志 軍

2016年 8月

중국경제의 성장둔화가 한국의 對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指導教授 許允碩

解 志 軍

이 論文을 經營學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16年 8月

解志軍의 經營學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①

委 員 _____ ①

委 員 _____ ①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6年 8月

The Impact of Korea's Exports to China on Growth Slowdown of China Economic

zhi-jun xie

(Supervised by professor Yun-Seok Hur)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August. 2016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
.....

August. 2016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OF JUJE NATIONAL UNIVERSITY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내용.....	2
제2장 중국의 경제 동향과 한·중 교역 현황.....	4
제1절 중국 경제 발전 과정.....	4
1. 1978년~2000년 발전 과정.....	4
2. 2001년~2012년 발전 과정.....	8
제2절 중국 경제 현황.....	10
1. 경제 성장률	10
2. 중국 대외무역 동향.....	13
3. 중국 가공무역 비중	14
4.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원인.....	15
5. 중국 경제 전망.....	19
제3절 한·중 교역 현황.....	21
1. 한·중 교역 규모.....	21
2. 한·중 교역 관계.....	24
제3장 중국경제의 성장둔화가 한국의 對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29
제1절 양국 무역 연계성의 분석.....	29
1. 무역결합도 지수.....	29
2. 분석의 결과.....	29
제2절 한·중 양국 간 품목별 경쟁 관계 분석.....	30
1. 분석의 범위.....	30

2.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fication Index: TSI)·····	31
3. 시장비교우위지수(Market Comparative Advantage: MCA)·····	32
4. 무역수지기여도지수(Contribution to the Trade Balance: CTB)·····	33
5. 분석의 결과·····	33
제3절 한국 對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39
1. 한국 對중국 수출 하락 ·····	39
2. 한국 對중국 가공무역 감소·····	41

제4장 중국경제의 성장둔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 방안·····46

제1절 신산업 육성 ·····	46
1. 서비스산업의 촉진 발전·····	46
2. 對중국 수출 유망 산업 육성·····	48
제2절 한국 대외수출 촉진 전략 ·····	49
1. 한국 對중국 내수시장에 진출·····	49
2. 신흥 시장 개척 ·····	50
제3절 한국 가공무역의 수출 활성화 전략·····	53
1. 한국정부 對기업 한·중 FTA 활용 지원·····	53
2. 중국 전자상거래 활용·····	55
제4절 양국 협력패러다임 구축 ·····	56
1. 상호 윈윈(win-win)의 협력패러다임 모색·····	56
2. AIIB와 동북아개발은행·····	57
3.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59

제5장 결론 ·····63

제1절 분석의 요약 및 결론·····	63
제2절 연구의 한계점·····	64

참고문헌	66
부록	69
ABSTRACT	71

<표 목차>

<표2-1> 개혁, 개방 후의 총생산액과 수출입총액 (1978년~2000년).....	7
<표2-2> 2001년 ~ 2013년 중국의 대외무역 수출입총액.....	9
<표2-3> 주요 경제지표 증가율.....	13
<표2-4> 중국 수출·입 현황.....	14
<표2-5> 중국의 가공무역 수출입 및 품목별 비중 감소 추이.....	15
<표2-6> 주요투자은행의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	20
<표2-7> 2015년 한국 주요국가 수출액.....	22
<표2-8> 2015년 한국 주요국가 수입액.....	22
<표2-9> 한국 對중국 주요 수출품.....	23
<표2-10> 한국 對중국 주요 수입품.....	24
<표3-1> 한중 양국 간 무역결합도 지수 변화 추이.....	30
<표3-2> 한국의 TSI 분석 결과.....	34
<표3-3> 중국의 TSI 분석 결과.....	34
<표3-4> 한국의 對중국 품목별 무역특화지수 분석결과.....	35
<표3-5> 한국의 MAC분석결과.....	36
<표3-6> 중국의 MAC 분석결과.....	36
<표3-7> 한국무역수지기여도지수 분석 결과.....	37
<표3-8> 중국무역수지기여도지수 분석 결과.....	38
<표3-9> 2012년 ~ 2015년 한국과 중국 무역	39
<표3-10> 한국과 중국의 수출입 비중	40
<표3-11> 한국의 對중국 품목별 가공무역 수출의존도	42
<표4-1>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 관련 5通의 주요 내용.....	60

<그림 목차>

[그림2-1] 연간 GDP 성장률.....	11
[그림2-2] 1978 ~ 2013년 중국 무역의존도의 추이.....	17
[그림2-3] 중국GDP 대비 소비 및 투자 비중.....	19
[그림2-4] 중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전망치.....	21
[그림2-5] 한국의 對중국 수출입 의존도	27
[그림3-1] 한국의 중국으로의 원자재 수출입 증가율	45
[그림4-1] 한국의 對중국 소비재 수출 현황.....	50
[그림4-2] 한국의 對신흥국 교역 비중.....	52
[그림4-3] 한국의 對인도 수출입 증가율	52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중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의 1.8%에서 2014년 16.7%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은 투자와 수출에 의한 경제 전략으로 눈부신 고도성장을 했다. 하지만 투자와 수출의 성장 전략을 지속적이지 못하고 경제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2008년 국제 금융위기의 여파로 대외경제 환경이 불안정하게 변화하면서 중국 경제는 많은 문제점을 표출하게 되었다. 과잉투자, 내부 소비의 부진은 중국 경제의 성장을 둔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중국의 각종 경제지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대외무역 또한 위축되고 있다.

한·중 양국은 1992년 처음 수교 이후 다양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무역 분야에서는 매년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2014년에는 ‘한·중 FTA’를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중국 경제의 성장 경착륙을 예견하는 보도가 연일 발표되면서 의존도가 높은 주요 한국 기업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2014년 11월 11일 한·중 FTA 체결 소식은 양국 모두에게 커다란 의의를 전해주고 있다. 하지만 중국 경제가 서서히 성장 둔화되는 추이가 나타나고 있어 對중국 수출·입 비중이 가장 높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중 FTA가 체결되었다고는 하지만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둔화된다면 한국무역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최근 한국의 對중국 수출 하락, 품목별의 경합관계가 저조한 현상들이 이런 대표적인 예가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경제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고 최근 동향과 한·중 양국의 경제 관계 및 양국의 교역 현황에 대한 분석하여 한국무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둘째,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가 한국의 對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한국의 對중국 수출·입, 양국의 가공무역, 양국 무역 연계성 및 양 국가 간의 품목별 경합관계 등의 분석을 통해서 중국의 성장 둔화가 한국의 對중국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한다. 셋째,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한국의 기업 및 관련 기관들의 대응 방안 및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1. 연구의 구성

본 논문은 중국 경제 둔화가 한국의 對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하고, 이에 따른 한국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서론으로 연구 목적과 연구의 방법 및 구성을 개시한다. 제2장에서는 중국경제의 발전 과정 고찰, 중국 경제의 현황, 중국경제 둔화의 원인 및 한국의 무역에 미치는 원인에 대하여 서술했다. 제3장에서는 중국경제 성장둔화가 한국의 對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對중국 수출의 하락, 가공무역 비중 감소, 양국 무역 결합도, 양 국가 간 품목별 경쟁관계를 무역특화 지수, 시장비교우위지수, 무역수지기여도지수 등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중국 경제 성장 둔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본 논문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도출하였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를 위해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시스템과 UN COMTRADE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중국 상무부, 중국 국가통계국 등의 기관 통계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양국 품목별 경쟁력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무역결합도지수(TII), 무역특화지수(TSI), 시장비교우위지수(MCA), 무역수지기여도지수(CTB) 등을 활용하여 분석했으며, 다수의 연구 논문 등을 활용하여 이를 근거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2장 중국의 경제 동향과 한·중 교역 현황

제1절 중국 경제 발전 과정

1978년 이전의 중국 경제는 경제성장이 불안정했는데, 이는 중국 대외교역의 부족하기 때문이다. 1978년에 들어서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¹⁾, 선부론(先富論)²⁾ 등 실용주의 경제 이론을 국가가 채택하면서, 사회주의 정치체제 하에서 사유 재산 제도를 인정하는 중국식 시장경제 체제가 구축되기 시작했다.

1. 1978년~ 2000년

1) 농촌의 개혁 시기(1979년~1983년)

1978년 이전에 중국의 농촌은 해방 후의 합작화운동(合作化運動)³⁾과 토지개혁(土地改革)⁴⁾을 거쳐 급격히 발전했으나 이후의 경제정책과 경제체제는 갈수록 농촌경제의 발전에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농촌 경제의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즉, 인민공사(人民公社)⁵⁾의 '일대이공(一大二公)⁶⁾'을 위주로 하여 인민공사를 경제 조직인 공사(公社)와 정부로 분리하지 않아서 시스템 관리에 있어 너무 소통

-
- 1) 흑묘백묘론: “검은 고양이든지 흰 고양이든지 쥐만 잘 잡으면 된다.”라는 뜻으로, 기존의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개혁·개방을 추진한 덩샤오핑의 중국식 시장경제를 의미함.
 - 2) 선부론: 대외 접근성이 뛰어난 동남 연해지역을 먼저 개발한 후, 내륙지역으로 개발범위를 확장한다는 1980년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기본 원칙임.
 - 3) 농업 합작화(農業合作化): 이것은 개인 농민을 조직하여 합작화 길을 행하는 것이다. 1953년 12월, 중공중앙은 《농업 생산 합작사(合作社)를 발전하는 것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 4) 토지개혁: 1949년 해방 초기에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였으며, 농민에게 토지를 분배하고 몇 년 후 도급제를 실시했다.
 - 5) 인민공사: 행정 조직과 농공업 생산부문·민병(民兵)·학교 등을 포함하는 중국 사회의 독자적인 말단권력조직이다.
 - 6) 일대이공: 공유제가 순수할수록, 공유제의 범위가 클수록 좋다.

성이 부족하여 농촌경제가 경제 노선에 따라 운행되는데 불리하였다. 생산 요소의 단체화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독립 계산단위와 경영이 지나치게 커져 농민의 생산 의욕을 충분히 고취시킬 수 없었다. 일방적으로 '식량증산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둔다(以糧爲綱)'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각 지방의 실정에 적합한 다양한 경영활동을 제한함으로써 농촌경제의 전반적인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일괄구입(統購)과 일괄판매(統銷)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농민의 자유 매매행위를 금지하여 중국 농민의 재산 증식의 길을 차단하였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1978년 이후 기존 농촌 경제체제의 단점에 대하여 국가에서는 일련의 새로운 농업 경제정책을 연속적으로 공포함으로써 과감한 농촌 경제 개혁을 실행하였다. '농업생산 책임제'는 한마디로 농민들이 국가로부터 빌린 땅에서 책임을 지고 농사를 짓고 자유롭게 경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리고 토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가운데, 일정량은 세금으로 납부하고, 잉여 농산물은 팔아서 개인적 소득을 획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1980년부터 중국정부는 각 농촌지역의 실정에 맞는 농업생산 책임제를 실행하였으며, 1980년대 중반에는 약 95%이상의 생산대대에서 농가생산 책임제가 실행되었다. 또한 이중 경영체제를 수립하여 개인경영과 집체경영을 다같이 중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농촌 경제개혁은 1980년대 중반부터 다시 침체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2) 기업 개혁 시기(1984년 ~ 1988년)

중국 도시 지역에서는 외자의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장려되어 광둥성(廣東省)의 신진(深圳), 상해(上海), 광저우(廣州) 등의 동부 지역의 여러 도시에 경제특구가 설치되었다. 화교나 구미 자본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것으로 자본, 설비, 기술 이전 등을 완수하는 한편, 기업의 경영자주권의 확대 등의 경제체제의 개혁을 실행하였는데, 그 내용을 아래와 같다.

첫째, 기업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하여 기업의 경영권과 소유권을 분리하는 자주권을 확대시키며, 관리방식과 기업경영을 개혁하여 공장장에게 생산, 일반적 경영권한을 주고 기업 경영 활동의 전반에 걸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관리자 책임제가 실행되었다.

둘째, 시장메커니즘의 제한적 진행으로 발행된 노무가격과 상품가격의 왜곡 등 가격체제를 조정 개혁하였다.

셋째, 기존의 경제체제하에서 정부가 기업의 관리라는 미시적 경제활동에 의한 거시적 경제 관리 업무에 소홀히 하였던 바, 거시경제 조정체계를 수립하였다.

넷째, 공유제를 주체로 한다는 전제하에 다각적 소유제 경제 체제를 발전 시켰으며, 마지막으로 개인, 집단, 국간 간 그리고 중앙과 지방간의 합리적인 소득분배 구조를 구축시켰다.⁷⁾

3) 사회주의 시장경제(1992년 ~ 2000년)

경제체제 개혁에 있어서 국유기업의 경영체제를 시장에 도입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대외개방에 있어서는 전 방위 지역 개방과 은행, 금융, 무역 등 3차 서비스 산업을 개방하고, 무역장벽 개선을 통한 시장개방작업을 추진하였다.

1992년 이후, 다시 추진된 개혁 개방으로 경제는 단번에 가속적으로 되었다. 그러나 농촌과 도시, 동부 연해와 서부 내륙의 지역 격차는 지속적으로 심화되었으며, 특히 농민, 농촌, 농업의 문제들은 극심하게 누적되었다. 중국의 독자적인 시장경제 체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경제개혁과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하여 2000년 중국 경제는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성장하였으며, 생산대국의 지위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의 뒤를 잇는 제4의 시장으로 성장하였다.

4) 개혁 개방의 경제 효과

개혁, 개방 정책을 통하여 중국은 세계 시장에서 진입하게 되었으며, 해외 선진적인 기술과 자본의 도입은 중국 경제가 고도성장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

7) 黄速建, 《国有企业产权制度的改革》, 经济管理出版社, 1999, pp.5-28.

다. 1978년부터 개혁, 개방정책을 실행한 이후 중국의 국내 경제지표들은 지속적인 증가하였으며, 수출입총액 역시 계속 증가함을 볼 수 있다. 2000년 중국의 수출입총액은 47,429억 위안으로 1978년의 2,064억 위안보다 약 23배 증가했다

1978년 개혁 개방 후, 중국의 경제 GDP 성장률 또한 급속하게 증가했는데, 농업 개혁시기(1978년~1983년)의 경제성장률은 1981년 5%, 1984년 15%를 기록하였다. 기업 개혁시기(1984년~1988년)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했으며, 특히 아시아 경제위기 시에 중국경제의 성장률은 떨어지지 않고 1997년 9%, 1998년에는 7% 성장하였다.

<표2-1> 개혁, 개방 후의 총생산액과 수출입총액 (1978년~2000년)

(단위: 억 위안,%)

연도	국내총생산	성장률	수출입총액	성장률
1978	3,645.22	11.67	206.4	39.46
1979	4,062.58	7.57	293.3	42.1
1980	4,545.62	7.84	381.4	30.44
1981	4,891.56	5.24	440.3	15.44
1982	5,323.35	9.06	416.1	-5.5
1983	5,962.65	10.85	436.2	4.83
1984	7,208.05	15.18	535.5	22.76
1985	9,016.04	13.47	696	29.97
1986	10,275.18	8.85	738.5	6.11
1987	12,058.62	11.58	826.5	11.92
1988	15,042.82	11.28	1,027.90	24.37
1989	16,992.32	4.06	1,116.78	8.65
1990	18,667.82	3.84	1,154.40	3.37
1991	21,781.50	9.18	1,357	17.55
1992	26,923.48	14.24	1,655.30	21.98
1993	35,333.92	13.96	1,957	18.23
1994	48,197.86	13.08	2,366.20	20.91
1995	60,793.73	10.92	2,808.60	18.7
1996	71,176.59	10.01	2,898.80	3.21
1997	78,973.03	9.3	3,251.60	12.17
1998	84,402.28	7.83	3,239.50	-0.37
1999	89,667.05	7.62	3,606.30	11.32
2000	99,214.55	8.43	4,742.90	31.5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2. 2001년 ~ 2012년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함에 따라 중국은 시장을 더욱 개방하고, 국유기업을 개인으로 전환하여 경영을 개선하였다. 또한 부실 금융기관에 대하여 구조 조정을 실행하고, 환율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물권법⁸⁾을 제정하였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관세를 인하하고, 서비스시장은 더욱 개방하였으며, 외자유치와 해외투자를 확대하였다. 또한, 동남아시아, 한국, 호주 등의 국가들과 자유 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시장 개방을 확대하였다.

1) 경제 성장률 제고

2001년부터 수출과 외국인 직접 투자의 촉진으로 중국경제는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2000년~2012년 기간 동안 중국의 실질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9.2%를 상회하였다. 중국의 무역의존도는 2001년 43.4%, 2005년에는 63.9%로 증대되었다. 또한 중국은 세계의 주요 투자 대상국들 중의 하나로 부상하였으며, 외자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로 시장이 활성화되어 중국 수출의 주요 기반이 되었다.

2) 산업구조 개편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 고용구조 및 기업의 구조 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시장 구조의 개편을 촉진하였다. 농업의 경우에는 중국정부가 농촌에 부담했던 불합리한 세율에 대하여 세계개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였고, 농업보장 정책도 적극적으로 실행했다. 농업부문의 노동자는 다른 부문의 노동자들의 소득에 비하여 많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농업정책으로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이고 감당할 수 있는 가격에 충분한 식량의 공급을 확보하고 있다. 제조업의

8) 물권법: 채권법(債權法)과 함께 재산법(財産法)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면서도 채권법과는 다른 특질을 가진다. 채권법은 계약자유 원칙을 바탕으로 임의규정성을 갖지만, 물권법은 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義)를 바탕으로 강행규정성을 가진다.

경우에는 수출 지향형, 자본 집약형으로의 투자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여기에는 정부의 협조와 공공투자의 방식이 포함된다.⁹⁾

3) 무역규모 확대

교역조건이 개선되면서 수출이 증대되었다. 중국 경제는 WTO에 가입하고 매년 0.5% 이상의 추가 경제 성장을 달성하였고, 무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표2-2>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수출입총액의 성장률은 연평균 약 20%를 달성했으며, 특히 2003년에는 성장률이 37.09%로 기록했다. 2009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하여 중국의 수출입총액 성장률은 -13.78%로 하락했지만 2010년에는 성장률이 34.72%로 다시 증가하였다. WTO에 가입함으로써 중국의 국가 신용도는 제고되었고, 이는 외국인의 투자 위험이 줄어 등을 보여줌으로써, 외국 기업의 직접투자도 증가하였다. 외국의 자본이 중국 저렴한 노동력과 결합되면서 중국의 산업구조가 재편되었다. WTO 가입은 중국의 수출에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 주었다. 중국은 WTO가입으로 WTO의 백여 개가 넘는 회원국들과 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시장 논거 및 정책 등에 대하여 더 이상 미국에게 매년 한차례씩 질책 당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표2-2> 2001년~2013년 중국의 대외무역 수출입총액

(단위: 억 위안,%)

연도	수출입총액	성장률	연도	수출입총액	성장률
2000	4,742.90	31.52	2007	21,765.70	23.64
2001	5,096.50	7.46	2008	25,632.52	17.77
2002	6,207.70	21.8	2009	22,075.35	-13.78
2003	8,509.80	37.09	2010	29,739.98	34.72
2004	11,545.50	36.67	2011	36,418.60	22.46
2005	14,219.10	23.16	2012	38,671.19	6.19
2006	17,604.4	23.81	2013	41,596.93	7.57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9) 劉敬東, 貿易政策審議, 「WTO秘書處關於中華人民共和國的報告」, 中國財政經濟出版社, 2008, p.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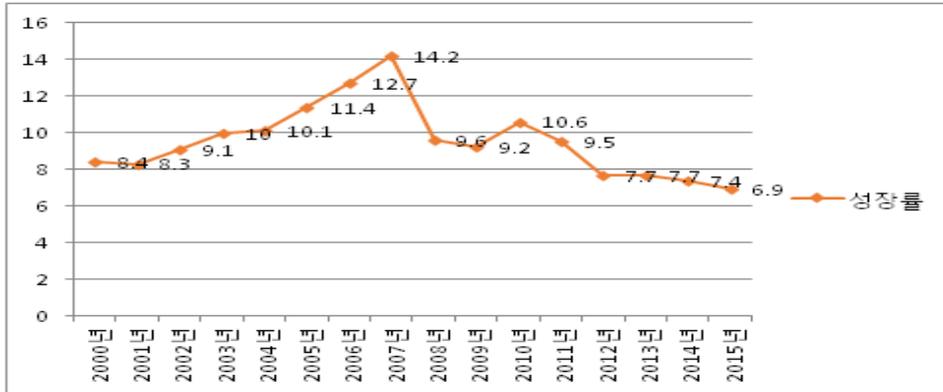
제2절 중국 경제 현황

중국 경제는 2015년 말 기준으로 교역 규모 세계 2위, 경제 규모 세계 2위, 외국인 직접투자(FDI) 세계 2위, 외환보유율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였다. 2015년 말 기준으로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1조 7,820억 달러(약 68조 위안), 교역 규모 3조 8,820억 달러, 외국인 직접투자 순 유입 1,057억 달러, 외환보유고 2조 8,500억 달러이다. 하지만 중국 경제는 부동산 경기 부진, 세계 경제 환경 변화와 성장기의 자재인 과잉설비 등으로 인하여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경제 문제들이 표출되고 있다.

1. 경제 성장률

2011년 이전의 중국은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였으나,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산업구조의 문제가 날로 부각됨에 따라 2012년 이후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둔화되었다. 특히 시장 상황이 변화됨에 따라 내수 소비에 의한 경제 성장 모델로 전환하지 못하면서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속도가 점차 둔화되면서, 연간 GDP성장률과 분기별 성장률이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중국 경제는 10.6%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연초 목표와 비교해 1.4% 포인트를 초과 달성하였으나, 2012년 이후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었으며, 2015년에는 1990년(3.8%) 이후 가장 낮은 6.9%를 기록하였다. [그림2-1]을 보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2007년 14.2%의 고점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3년 7.7%, 2014년 7.4%, 그리고 2015년에는 1990년의 3.8% 이후 가장 낮은 6.9%를 기록했다.

[그림2-1] 연간 GDP 성장률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1) 주요 경제지표의 현황

최근 중국은 기존의 수출과 투자에 의존한 경제 성장 전략의 한계가 표출되면서, 중국경제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1) 고정 자산의 투자증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고정자산투자자들이 2009년 이후 경제성장을 주도해 왔으나, 부동산 개발 투자 및 제조업 부진으로 2014년 상반기의 17%에서 2015년 11.4%대로 떨어졌다. 특히, 제조업 관련된 투자가 지속적으로 둔화되면서 2015년 상반기 제조업 고정 투자증가율이 9.7%가 그치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최근 노동비용의 상승으로 노동집약형 산업인 제조업의 기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표2-3참고). 2014년에는 고정자산투자의 증가율은 15.7%를 기록했으나 2015년 1월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 산업생산은 수출이 지속적으로 둔화됨에 따라 2015년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6.3% 상승하였으나, 최근 몇 년 동안 6%대에 머물고 있다. 소매 판매의 경우 가계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 반부패 정책 영향, 부동산경기 위축 등으로 증가율이 축소되며 10.4%로 하락하고 있다.

(3) 생산자물가지수(PPI)는 2014년 7월부터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출하가격 중 생산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소비재 가격은 다소 상승하고 있다. 생산자물가는 2014년에 증가율-1.9%를 기록하였다.

(4) 소비자물가지수(CPI)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중국인민은행에서 발표한 핵심물가지수와 도매 물가지수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디플레이션 압력이 증대되고 있다. 2014년에는 증가율 2%였으나 2015년 상반기에 15%로 하락하고 있다.

(5) 중국은 과거 전 공업 분야에 걸쳐 과잉설비 투자가 이루어졌고, 최근 국내외 수요 감소로 설비가동률이 크게 낮아진 상황이다. 2014년부터 전체 제조업 가동률이 50%대로 낮아졌고, 철강, 제조업, 자동차 등 주요 산업과 함께 태양광 패널 등 신흥 산업 부문도 낮은 설비가동률로 인하여 다양한 문제가 도출되고 있다.¹⁰⁾

10) 승리, 「중국경제 형세 및 정책전망」, NDRC 경제연구, 2015, pp.1-3.

<표2-3> 주요 경제지표 증가율

		GDP	소매판매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고정자산투자	무역수지	총통화	산업생산
단위		%	%	%	%	%	억달러	%	%
2014년	1월		11.8	2.5	-1.6	17.9	319	13.2	8.6
	2월		11.8	2	-2	17.9	-230	13.3	8.6
	3월	7.4	12.2	2.4	-2.3	17.6	77	12.1	8.8
	4월		11.9	1.8	-2	17.3	185	13.2	8.7
	5월		12.5	2.5	-1.4	17.2	359	13.5	8.8
	6월	7.5	12.4	2.3	-1.1	17	316	14.7	9.2
	7월		12.2	2.3	-0.9	16.5	473	13.5	9
	8월		11.9	2	-1.2	16.1	498	12.8	6.9
	9월	7.3	11.6	1.6	-1.8	15.9	310	12.9	8
	10월		11.5	1.6	-2.2	15.8	454	12.6	7.7
	11월		11.7	1.4	-2.7	15.7	545	12.3	7.2
	12월	7.3	11.9	1.5	-3.3	15.7	496	12.2	7.9
년간			12	2	-1.9	13.9	3831	12.2	8.3
2015년	1월		10.7	0.8	-4.3	13.9	600	10.8	6.8
	2월		10.7	1.4	-4.8	12	606	12.5	6.8
	3월	7	10.2	1.4	-4.6	11.4	31	11.6	5.6
	4월		10	1.5	-4.6	11.4	341	10.1	5.9
	5월		10.1	1.2	-4.6	13.5	589	10.8	6.1
	6월	7	10.6	1.4	-4.8	11.4	465	11.8	6.8
1월~6월		7	10.4	1.3	-4.6	11.4	2632	11.8	6.3

주: 전년 동월(기) 대비 증가율

자료: 중국통계국, 해관총서, (www.cutoms.gov.cn)

2. 중국 대외 무역 동향

중국의 대외 무역 동향은 2011년 중국 경제 성장둔화와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해 중국의 수출입은 전년 대비 모두 성장 둔화 추세를 보였다. 중국은 2011년 이

후 수출증가율은 하락하는 반면 수입증가율은 상승하면서 경제성장에서 대외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 외수경기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수출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었고, 무역수지 흑자는 급격히 증가하는 등 불황형 흑자 양상을 볼 수 있다.

<표2-4> 중국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연도	수출액	수출증감률	수입액	수입증감률
09년	1,202,047	-15.90%	1,003,893	-11.30%
10년	1,578,444	31.30%	1,393,909	38.90%
11년	1,899,314	20.30%	1,741,624	24.90%
12년	2,050,109	7.90%	1,817,344	4.30%
13년	2,210,772	7.80%	1,941,466	6.80%
14년	2,343,222	6%	1,963,105	1.10%
15년	2,280,437	-2.70%	1,601,598	-18.40%

출처: 중국국가통계국 및 해관총서(www.cutoms.gov.cn)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과 함께 대외 무역에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대외수출 증가율은 2010년에는 31.3%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 수입증가율도 2015년 -18.4%를 기록하면서 무역수지는 2015년에 사상 최대인 5,94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한편 수출주문 상황을 반영하는 중국 관방 PMI의 수출주문지수는 지난 2015년 12월 47.5p로 15개월 연속 기준치50p를 하회했다.¹¹⁾ 또한 중국의 주요 수출대상국에 관한 수출증가율이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3. 중국 가공무역 비중

중국의 가공무역은 엄격한 억제정책 실시와 중국 경제 성장둔화가 때문에 2012년부터 다시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중국 총 무역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공무역 수출 장려정책과 함께 2007년 45.31%까지 상승했으나 2012년부터 중국 경제성장 둔화 시작되면서 2014년 26.8%로 낮아졌다. 특히 총수입에서 가

11) 천용차, 「최근 중국 경제의 리스크 점검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2016, p.12.

공무역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38.5%에서 2014년 25.2%로 하락하였다 (표2-5 참고). 중국의 가공무역 수입의존도를 계산해 보면 글로벌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에 비해 2014년 수입의존도가 대부분의 품목에서 하락세가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반도체, 전기기기, 철강제품 등의 가공무역 수입의존도는 -10%를 넘게 하락하였다. 광학기기는 2007년에 비해 -9.9%를 감소하였고, 기계류는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와 같은 가공무역의 감소 추세는 중국과 가공무역에 대한 수출입 비중이 높은 한중 무역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표2-5> 중국의 가공무역 수출입 및 품목별의 비중 감소 추이

(단위:%)

	2007년A	2014년B	A-B
반도체	72.6	53.8	-18.8
전기기기	58.1	46.2	-11.9
광학기기	79.8	69.9	-9.9
기계류	21	20.6	-0.4
철강제품	40.5	25.5	-15
수입비중	38.5	25.2	-13.2
수출비중	50.62	33	-17.62
무역비중	45.31	26.8	-18.35

자료: 중국 상무부

4.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원인

중국의 성장둔화는 고업분야의 경쟁력 저하가 주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공업 분야는 생산력 과잉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공업제품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기업의 경영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또한 부동산 시장 조율 실패로 상품성 주택의 가격과 판매량이 모두 떨어져 많은 도시에서 주택 재고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악화 및 채무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져 중국 금융시장 리스크가 증대되는 등 다양한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원인들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2012년부터 중국경제의 성장둔화가 나타난 것이다. 중국 경제 둔화 요인들은 다양하나 주요 요인들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세계금융위기 영향

중국 경제는 수출 주도형 성장 모델에 따라서 성장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대외무역의 의존도는 점차 높아졌다. 1978년에는 중국 대외무역의 의존도가 9.7%를 기록했지만 2013년에는 45.4%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중국 경제도 수출 이익이 급감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다. 금융위기는 세계 주요 선진국의 경제에 타격을 주었다.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한지 7년이나 되었지만, 오직 미국만 뚜렷한 경제 회복세를 보일 뿐, 기타 많은 주요 선진국들은 오히려 위기 전보다 상황이 나빠졌고, 유럽도 아직도 아슬아슬하게 위기의 외줄 타기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과거 가불을 하거나 빚을 내 능력 이상의 소비를 하던 선진국들의 소비문화가 현실적 소비문화로 변경되었고, 선진국들은 “재 공업화” 전략과 무역보호주의 강화를 통해 경제 회복을 계획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주요 수출 상품에 대한 세계적 수요가 눈에 띄게 하락하였다.¹²⁾

금융위기의 영향이 때문에 중국 대외 수출의존도 2008년 전년대비 5%를 감소하고, 2009년 마이너스로 전환되어 대외무역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중국 대외 무역 의존도는 2013년 45%를 기록했는데 2007년 65%에 비해 5년간 무려 -20%가 감소한 것이다.

12) 黄涛, 「中國經濟增速放緩是必然的, 偶然的」, 中國人民大學, 國際貨幣研究所, 2015, p.12.

[그림2-2] 1978~2013년 중국 무역의존도의 추이



자료: 중국 국가 통계국

2) 과잉설비

중국경제는 그 동안 고정투자·수출에 의한 경제 성장모델을 추구해옴에 따라 과잉설비 문제가 누적되었다. 특히, 세계 금융위기 이후 중국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정책(4조 위안 규모)으로 중국 은행의 대출과 생산기업의 투자가 대폭 증가 되었으나 대내외 수요회복이 지연되면서 과잉설비를 나타낸다. 2008년 4조 위안의 대규모 경기부양정책은 과잉설비와 함께 신용팽창 문제를 초래하였다고 지적 하였으며, 중국의 제조업 가동률이 과거 90% 수준에서 최근 50%까지 하락하는 등 과잉설비가 주요한 중국 경제 성장의 위협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중국경제의 산업 과잉설비 수준을 나타내는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자본스톡순환도, 재고 순환도 등을 토대로 그 정도를 간접적으로 가늠해 보면 경제전반의 설비과잉이 상당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과잉투자로 인해 과잉설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2015년 중국의 GDP 대비 투자비중은 51.4%로 전 세계 국가평균인 22.7%의 두 배 이상 상회하였다. 중국경제의 상업 과잉설비 문제는 향후 장기간 금융부문 및 실물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물부문에 설비 과잉은 상품가격 하락, 기업소득, 상품 재고 증가 감소 등의 문제를 도출하고 이로 인해 기업의 투자욕 등 경제주체의 의욕을 약화시켜 중국경제의 성장률은 둔화되었다. 금융부문에 기업소득 감소 및 경제주체의 의욕 감소는 관련된 업

종의 부실채권이 증가하는 가운데, 자금공전(資金空轉)¹³⁾ 현상 및 신용공급과 실물 경제간 디커플링(decoupling)¹⁴⁾을 도출하는 등 금융 리스크를 확대하였다.

과잉설비는 공급의 비탄력성과 시장수요의 불확실성 등에 주로 기인하나 중국은 이외에 다음과 같은 순환적, 구조적 요인에 의해 설비과잉 현상이 발생하였다. 과잉설비의 요인으로는 첫째, 중국 경제가 투자, 수출 주도형에 의한 성장 모델을 한계성에 봉착한 것, 둘째 중국지방정부는 아직도 GDP 성장 중심형 경제 발전 전략을 실행하고 있는 점, 셋째 중국 국영기업의 비효율적인 생산과 마지막으로 중국 산업 생산요소의 수준이 낮고 불안정한 에너지 가격 등이다.

이에 중국 정부는 과잉설비의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 성장전략 전환 및 경제 개혁, 산업 구조조정을 굳건히 추진할 전망이나 제반 구조적 요인 해소에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¹⁵⁾

3) 내수 시장 부족

최근 국내 소비의 둔화세가 지속되면서 소비에 의존한 경제 성장 모델로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시행되기 어려워지고 있다. 소매·판매 증가율은 2000년 9.7%에서 2008년 21.6%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2015년(1~11월) 10.6%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중국의 GDP 대비 소비 비중은 2012년 50.8%에서 2014년 51.4%로 소폭 증가하였다. 한편, GDP 대비 가계소비 비중은 2014년 약 38%로 일본, 미국 등 선진국과는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세계은행 통계 자료에 따르면, 미국, 일본의 GDP 대비 가계 소비가 비중은 2000년 각각 56.5%, 66%에서 2014년 각각 61%, 68%를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¹⁶⁾

13) 자금공전: 한 은행의 돈을 빌린 후에 다른 은행의 기금을 사는 행위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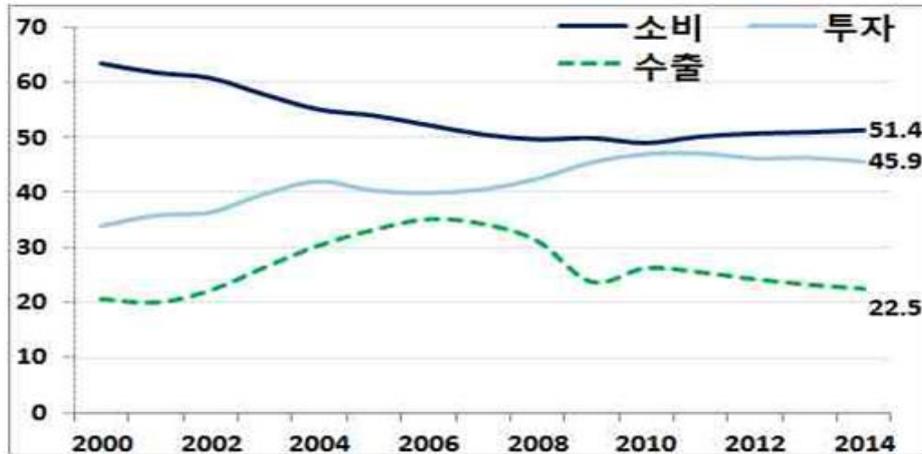
14) 디커플링: 중국은 경제의 신용등급과 실물 경제 간 상호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15) 于立, 张杰, 「中国产能过剩的根本成因与出路非市场因素及其三步走战略」, 《改革》, 2014, pp.40-51.

16) 王今朝, 「核心消费决定论——从市场与消费的结构扭曲看中国内需不足的根本影响因素」, 《河北经贸大学》2015, pp.27-37.

[그림2-3] 중국 GDP 대비 소비 및 투자 비중

(단위: 비중, %)



자료 : 한제진, 현대경제연구원, 「2016년 양회(兩會)와 중국 경제의 향방」 2016년3월,P.3.

5. 중국 경제 전망

중국정부의 소비 진작과 구조 개혁 노력은 6~7%대 낮은 성장률을 예측하게 한다. 또한 중국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대두되고 있으나, 이는 세계에 주요 선진국들의 경제성장 회복세가 지연됨과 함께 중국이 ‘중속 성장 체제’로 성장 모델을 전환함에 따른 과도기적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재 중국 경제상황은 구조개혁 시기에 경제 성장률 감속구간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과거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외연적 성장보다는 내수·서비스 중심으로 균형적 성장을 추진할 계획할 것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등 해외 경제기관들은 중국 경제가 단기적으로는 성장률 둔화를 피할 수는 없으나, 중장기적으로 경제구조 개혁 노력으로 경착륙이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하다.¹⁷⁾

1) 주요 투자은행들의 2016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

대부분의 투자은행들은 2016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정부 목표에 미달한 6.7%~6.9%내외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표2-5참고). 투자은행들은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지방정부 채무, 내수경기위축 등으로 중국의 성

17) 박종국, 송용원, 「중국 경제현황 진단과 우리의 대응방안」,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연구소, 2015, pp.6-12.

장률이 7%에 미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부분의 투자은행들은 2016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정부 목표에 미달한 6.6%~6.9%내외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표2-6참고). 투자은행들은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내수경기위축, 지방정부 채무 등으로 중국의 성장률이 7%에 미달할 것으로 전망할 것이다.

<표2-6> 주요 투자은행의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주요 투자은행	전망 시기	2015년			2016년				
		3Q	4Q	연간	1Q	2Q	3Q	4Q	연간
투자은행 평균		6.8	6.9	6.9	6.9	6.8	6.7	6.6	6.7
ANZ	07월 22일	7	6.5	6.8					6.7
bank of America	07월 22일			7					6.8
barciays	07월 22일	6.8	6.7	6.8	6.9	6.6	6.5	6.5	6.6
berenberg bank	07월 22일	6.9	6.9	7	6.8	6.7	6.6	6.7	6.7
BMO capitai	07월 22일	6.7	6.7	6.9	6.6	6.5	6.5	6.5	6.5
B N P paribas	07월 22일			7.1					7.3
UBS	07월 22일			6.8					6.5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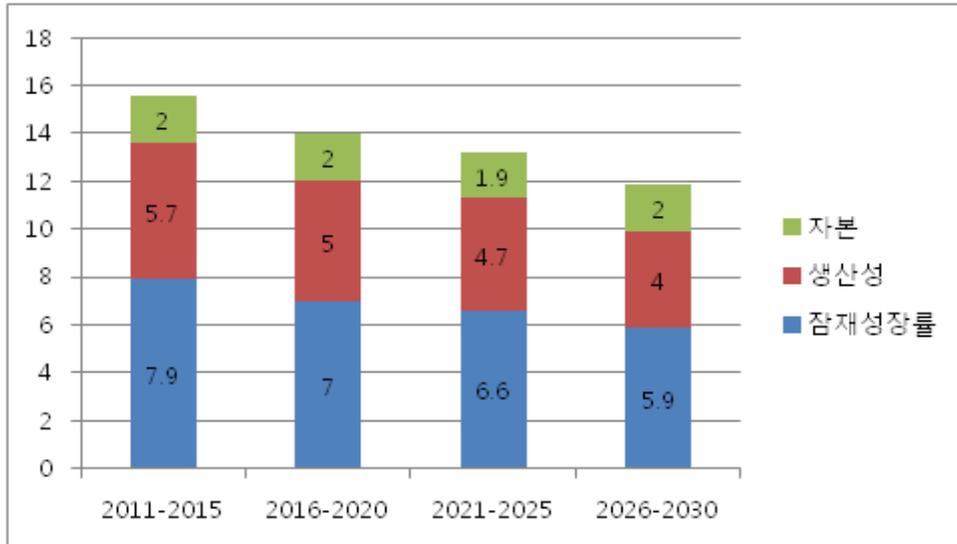
2) 중국경제의 잠재 성장률 하락

중국 경제는 향후 10년간 2~3%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향후 생산인구감소와 연령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공급의 여건의 변화가 예상되면서, 경제 성장률 하락이 전망된 것이다. 즉 인구구조에 따른 저축률의 감소 및 총생산성의 변화가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킨 것이다. 현재 중국경제 성장률의 둔화는 주기적인 변화이며, 정부 정책을 시행하는 결과이다(그림2-4 참고). 즉, 자원제약과 외부수요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중국의 잠재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5년에 7%대로 예상되고 있으며, 반면에 자원제약과 외부수요를 고려할 경우 2025년에는 5.6%대로 예측되었다. 중국경제의 성장률 하락은 피할 수 없는 추세이지만,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었다.¹⁸⁾

[그림2-4] 중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전망치

(단위: 잠재성장률%, 기여도%p)



자료: 한국 주 중국 대사관(<http://chn.mofat.go.kr>)

제3절 한·중 교역 현황

1. 한·중 교역 규모

중국 상무부 통계결과에 의하면 2015년 한중 무역액은 3.4%하한 2,273.8억 달러이다. 무역액 중 한국 대중국의 수출액은 1,371.4억 달러(5.6% 감소)이고, 대중국 수입액은 902억 2,000만 달러(0.2% 증가)였다. 당시 한국의 무역흑자는 469억 2,000만 달러에 그치며 15% 감소율을 보였다. 이로써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 동시에 최대수입국은 중국임을 입증하게 된다.

18) 승리, 「중국경제 형세 및 정책전망」, 전계 논문, pp.1-3.

1) 한국과 중국의 무역 대상국 위치

<표2-7> 및 <표2-8>에서는 한국 수출대상국과 수입대상국의 순위를 나타내는 데 한국의 대외무역 최대 대상국을 알 수 있다.

<표2-7> 2015년 한국 주요국가 수출액

(단위: 백만 달러,%)

국가/지역	금액	점유율
총생산	526,901	100
중국	137,140	26
미국	69,845	13.3
홍콩	30,421	5.8
베트남	27,773	5.3

자료: 중국 상무부(www.mofcom.gov.)

수출 경우는 수교 당시 제6위 수출대상국이었던 중국은 2003년에서 미국을 추월하여 한국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하였다. 2015년 기준으로 대중국 수출액은 대외수출 비중의 26%인 137,140 백만 달러로 미국(69,845백만 달러)과 홍콩(30,421 백만 달러) 합친 것 보다 36.7% 더 많다. 중국은 2015년까지 연속 12년 동안 한국의 최대 수출대상국이 되었다.

<표2-8> 2015년 한국 주요국가 수입액

단위(백만 달러,%)

국가/지역	금액	점유율
총생산	436,548	100
중국	90,237	20.7
일본	45,854	10.5
미국	44,029	10.1
독일	20,952	4.8

자료: 중국 상무부

한편 수입과 같은 경우는 1992년 수교 당시 제5위 이었던 중국은 2007년에서 일본을 추월하여 한국의 최대 수입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한국의 대중국 수입은

대외수입에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에 20.7%로 기록하였다. 이로 인하여 중국은 한국의 제일 무역상대국으로서 한국의 대외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공고히 차지하고 있다. 이 부분에도 역시 한국은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 및 교역이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한·중 무역의 품목별

(1) 한국의 對중국 수출품

<표2-9>에 나타났듯이 전기기기 및 부분품, 기계류, 광학 의료 기기 및 화공 제품 2015년 수출 함께 한국의 대 중국 전체 수출의 70.8 %를 차지한다. 2015년 3대 제품 대 중국 수출액은 전기기기, 기계류 및 제품의 수출을 차지 677.9억 달러, 정밀기기의 수출을 차지 192.9 억 달러, 유기 화공 제품의 수출을 차지 100.7 억 달러이었다, 중국에 한국의 주요 수출은 기계류 및 전기제품이 2.5 %와 2.9% 증가, 정밀기기 및 유기화공 제품 수출은 5.4%와 25% 하락했다. 2015년 광물 제품, 중국에 한국의 수출에 수출 종이와 동물 제품은 더 큰 감소를 보였다.

<표2-9> 2015년 한국 對중국 주요 수출품

(단위: 백만 달러, %)

HS code2	품목	2015년	2014년	동기대비%	점유율%
장	총 수출액	137,140	145,288	-5.6	100
85	전기기기 및 부분품	52,666	51,182	2.9	38.4
90	정밀기기	19,258	20,351	-5.4	14
84	기계류 및 부분품	15,128	14,758	2.5	11
29	유기 화공품	10,079	13,440	-25	7.4
39	플라스틱 제품	9,064	10,314	-12.1	6.6
87	차량 및 부분품	6,353	7,435	-14.6	4.6
27	광물 제품	4,893	7,799	-37.3	3.6
72	철강	3,078	3,907	-21.2	2.2
74	동과 제품	1,577	1,619	-2.6	1.2
28	무기 화학품, 귀금속 및 제품	1,315	1,120	17.4	1
33	화장품 및 제품	1,191	598	99.2	0.9
73	철강제품	1,077	1,055	2.1	0.8

자료: 중국 상무부(www.mofcom.gov.)

(2) 한국의 對중국 수입품

2015년 중국에서 한국의 수입은 상위 세 전기기기 및 부분품, 기계류 및 부분품, 철강이다.(표2-10참고) 한국 대중국 3대 제품의 수입액은 각각 316.7억 달러, 102억 달러, 68.8억 달러이다. 그 3대 제품은 한국이 중국에서 수입한 총액의 각 35.1%, 11.3%,7.6%를 차지한다. 전기기기 및 부분품은 11.4%를 증가하고 기계류 및 부분품과 철강은 각각 2.5%, 22.7%를 하락한다.

<표2-10> 2015년 한국 對중국 주요 수입품

(단위: 백만 달러, %)

HS code2	품목	2015년	2014년	동기대비%	점유율%
장	총 수입액	90,237	90,082	0.2	100
85	전기기기 및 부분품	31,672	28,444	11.4	35.1
84	기계류 및 부분품	10,202	10,461	-2.5	11.3
72	철강	6,884	8,903	-22.7	7.6
90	정밀기기	4,324	4,089	5.7	4.8
73	철강제품	3,654	3,531	3.5	4.1
29	유기 화합품	2,441	2,647	-7.8	2.7
62	의류 및 부속품	2,199	2,306	-4.7	2.4
39	플라스틱제품	2,198	2,068	6.3	2.4
28	무기 화합품, 귀금속 및 제품	2,020	2,007	0.7	2.2
94	가구 및 부분품	1,871	1,703	9.8	2.1
87	차량 및 부분품	1,463	1,450	0.9	1.6
61	방직품	1,192	1,180	1	1.3

자료: 중국 상무부(www.mofcom.gov)

2. 한·중 교역 관계

1) 한·중 양국의 경제 관계

한·중 양국은 상호 경제의 상호 의존도가 빠르게 증가되면서 상호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등 양국경제의 관계가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국가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경제는 1978년 개방을 본격화하고 2000년 WTO가입을 통해서 주변국가에

대한 이해관계의 상충과 중국 경제가 연평균 9.6%의 고도성장을 기록함으로써 종전보다 광범위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교 20여 년간 한국의 대중국 무역은 약 75 조원의 GDP를 창출하면서 한국경제에 연평균 6.6%상승하는 기여를 하였다. 한중 경제 교류는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금융 여파로 주춤했으나, 중국의WTO가입과 한국경제의 경기회복으로 2001년 이후 급증하였다. 내수부진으로 고전하던 2000년~2004년 중국수출이 한국경제의 성장률에 크게 기여하였다. 2013년부터 양국경제의 질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물론 외교부문 및 정치에 있어서도 상호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양국 관계가 진전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경제 관계는 상호보완과 상호 의존이기 때문에 FTA체결을 통해서 현존하는 제도적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많은 경제적 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 관계다.

중국과 한국의 주요 경제 교류의 현황을 살펴보면, 첫째, 한국의 대중국 제조업 부가가치 의존도가 상승하는 동시에 중국도 대 한국의 제조업에 대한 고부가가치 의존도가 확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의 자체 조달 비중이 1995년 62.8%에서 2013년 56.6%로 축소한다. 동기간에 한국의 대중국 제조업 부가가치 의존도는 1.8%에서 10.3%로 급상승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제조업 부가가치 자체 조달 비중은 1995년 76.1%에서 2013년 76.8%로 상승한다. 동기간에 중국의 대한국 제조업 부가가치 의존도는 2.4%에서 2.5%로 거의 횡보하는 수준에 그친다. 하지만 중국의 대한 고부가가치 제조업 의존도 상승 횡보하고 있는 것 같은 중국의 대한국 부가가치 의존도를 산업별로 보면 전기 광학기, 기계, 금속 및 제품, 수송기기에 대한국 부가가치 의존도가 상승하고 있다. 특히, 전기 광학기기의 대한국 의존도는 1995년3.0%에서 2013년 6.7%로 크게 확대된다.

둘째, 중국은 한국의 제2의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상대국이며, 한국도 중국의 상위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대상국으로서 양국 전반에 상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중국에 대해 1992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29.0억 달러 규모의 직접 투자를 실행하였다. 동기간에 누적 기준으로 697.1억 달러를 투자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 미국은 중국에 직접투자 총액이 879.5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은 중요한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상대국이다. 한국

에 관한 외국인 직접적으로 투자 운데 중국인의 투자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9.5%로 증가했는데, 이는 전체 투자국 가운데 3위 수준이다.

한편, 1992년부터 2015년까지 누적 기준으로도 중국은 한국에 약 81.1억 달러를 투자해 8번째로 많이 투자한 국가이다. 중국의 대한국 투자 규모는 2015년 40.3억 달러로 한국은 중국의 전체 직접투자 대상국 가운데 3번째로 큰 투자 대상국이다. 1995년부터 2015년까지 누적 기준으로도 한국은 중국의 5번째로 큰 직접투자 대상국이다.¹⁹⁾

최근 중국경제는 대외무역 하락, 투자열기 둔화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고속 성장의 후유증으로 인한 중국 경제 경착륙 가능성, 환경오염, 금융부실, 양극화 확산, 에너지고갈 등의 리스크 요인의 증대된다. 국제 통화 기금 IMF는 중국경제의 성장률이 연간 1%를 하락함에 따라 아시아 주요 국가의 GDP가 0.8%를 줄어드는 충격이 가해 질 것으로 전망할 것이다. 중국경제의 성장률이 7%대를 유지할 경우 한국 대 중국 수출과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현 수준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될 것이다. 다만, 중국경제의 성장률이 5%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한국의 수출 및 경제성장률은 각각 4.0%p, 1.0%p 하락할 것으로 전망할 것이다. 한국 산업별을 살펴보면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의 조선 산업은 중국 경제 성장 둔화에 관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철강, 석유화학, ICT 등은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될 것이다. 특히,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석유화학(45.7%)과 ICT(51.0%)는 중국 경제 불경기 둔화에 따른 중국 자급률 상승과 국내 수요 부진으로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해외 건설, 철강 등은 해외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 격화가 되고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 가능성 등으로 인해 악영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을 향후에도 한국 경제에 있어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되지만, 성장전략, 경제성장세, 리스크 측면에서 변화가 예상되고 한국은 중국의 리스크에 유념하면서 중국을 경제발전의 동인 및 산업구조 고도화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 있다. 기업은 한·중 간 경쟁력 수준의 변화 및 기술격차를 고려해 효율적인 분업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중국경제의 환경변화로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19) 현대 경제연구원, 「한중 경제의 중요성과 나아가야 방향」 제16-8호, 2016, pp.3-7.

환경 보호 산업, 신에너지 및 서비스산업 등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할 필요성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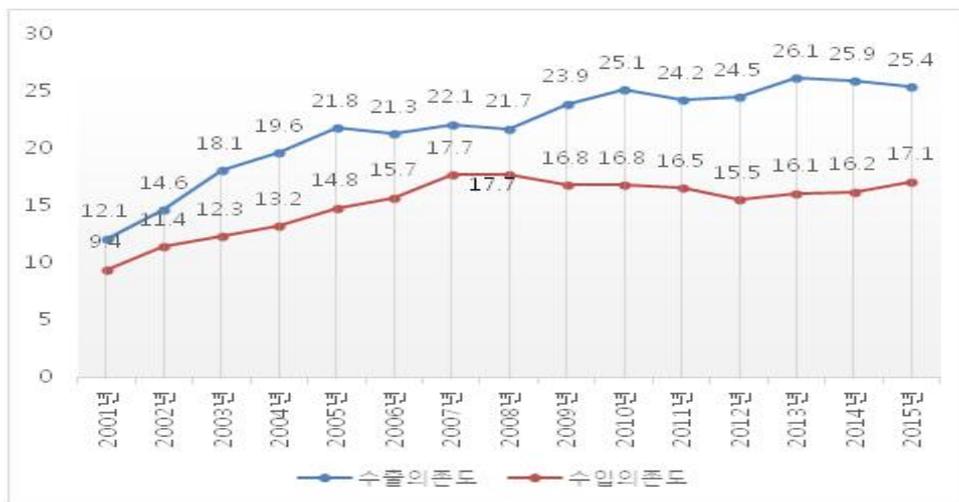
2) 한국 對중국 높은 수출의존도

연도별로 한국 전체 수출총액과 대중국의 수출총액의 비교, 그리고 한국 대중국의 수출의존도는 [그림2-5]에서 나타나는 바와 함께 한국 대중국의 수출의존도는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부터 급격히 증가세를 나타냈다. 다시 말하면 한국 대중국의 수출의존도가 높아진다는 뜻이다. 2008년에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21.7%나 상승하였다가 2015년 25.4%로 증가하였다.

품목별로 보면 한국 대중국 주요 10대 수출제품 중에서 전기기계 제품인 디스플레이, 광학, 의료기계 등 유력수출제품이 대중국의 수출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2015년 기준으로 수출상위 10대 품목 중에서 2014년 대비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모두 상승하였다

[그림2-5] 한국의 對중국 수출입 의존도

(단위:%)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kita.net>

한국이 대중국의 수출의존도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 대중국 가공무역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 변화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한국이 수출로 인하

여 중국경제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가 중국경제 성장 둔화에 따른 위험도 높아진다. 물론 중국시장의 잠재력이 풍부하고 중국경제가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경우에 한국경제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만 중국경제의 경제성장률이 둔화하거나 악화될 경우 한국의 수출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제3장 중국경제의 성장둔화가 한국의 對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1절 양국 무역 연계성의 분석

1. 무역결합도 지수

무역결합도(Trade Intensity Index): 수출국의 수입국에 관한 수출의 상대적인 시장집중도를 나타낸다. 무역결합도 지수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한 무역이 세계무역에서 어느 정도 비율을 나타내는 것을 분석하는 지표로, 양국 간 무역의 존 관계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과의 연계성을 나타낸다.

$$\square \quad I_{ij} = (X_{ij}/X_i) / (M_j/M_w)$$

I_{ij} = i국의 j국에 대한 무역결합도

X_{ij} = i국의 j국에 대한 수출

X_i = i국의 총수출

M_j = j국에 대한 총수입

M_w = 세계 총수입

I_{ij} 가 1보다 크면 그 양국 교역 간의 상호보완성이 세계 평균보다 높은 반면 1보다 작으면 상호 보완성이 세계 평균보다 낮은 것을 의미한다.

2. 분석의 결과

한국과 중국의 무역 결합도 지수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2년 중국경제의 성장둔화가 때문에 한국 대 중국의 무역

결합도 지수에서 하락 추이가 나타났다. 즉,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對중국 수출은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對한국 무역결합도 지수는 2008년부터 둔화되고 있음이 관찰됐다. 분석한 결과에 따라 최근 한국의 對중국 수출액은 하락했으며, 중국의 對한국 수출도 둔화되고 있다.

<표3-1> 한·중 양국 간 무역결합도 지수 변화 추이

(단위: 백만 달러)

년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한국 대중국 수출	91,401	86,703	116,838	134,185	134,323	145,869	145,328
한국 총 수출	422,007	363,534	466,424	555,214	547,940	559,632	573,165
중국 총 수입	1,132,649	1,005,693	1,396,000	1,743,424	1,818,244	1,950,046	1,958,005
세계 총수입	16,547,770	12,748,970	15,495,350	18,505,320	18,722,220	19,031,230	19,078,300
한국Ij	3.17	3.05	2.77	2.56	2.52	2.51	2.48
중국 대한국 수출	73,905	53,730	68,811	82,925	87,747	91,253	100,302
중국 총수출	1,430,728	1,201,647	1,577,844	1,898,414	2,048,809	2,209,172	2,342,322
한국 총수입	435,275	323,085	425,215	524,413	519,584	515,586	525,615
중국Ij	1.06	1.73	1.59	1.53	1.55	1.51	1.56

자료출처: UN COMTRADE 사이트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저자가 작성

제2절 한·중 양국 간 품목별 경쟁 관계 분석

1. 분석의 범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수출입은 감소하는 반면, 한국의 對중국 수출입은 크게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가 발생하는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과 중국 간에 교역되는 품목들에 대한 경쟁력을 살펴보면, 중국경제의 성장률이 품목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중 1위에서 10위까지의 품목들은 서로 유사하게 수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품목들이 서로 수출

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서로 보완관계에 있거나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과의 교역에서 서로 유사한 품목들이 경쟁력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분석을 통해 알아보려고 한다. 즉, 중국과 한국과의 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해서 무역특화지수, 시장비교우위지수, 무역수지기여도지수를 활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시간 분석 범위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발생 이후부터 2014년까지로 한다. 적용 품목은 철강(HS₂ 72), 철강제품(동 73), 기계류 및 부분품(동 84), 전기기기 및 부분품(동 85), 정밀기기(동 90) 등 5개 품목으로 선정하였다.

위 품목은 2008년부터 한국의 총 수출액에서 65%를 이상 차지하는 품목이며, 중국의 총 수출액의 60%를 이상 차지한다.

2.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alization Index)

무역특화지수(TSI)는 한 시장에서 양국 간 수출경쟁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각 품목의 수출입 차이를 해당 품목의 교역규모(수출액·수입액)로 나누어 측정한 값이다. 즉 무역특화지수는 한 상품의 수출총액과 수입총액, 그리고 전체 무역액을 이용해 상품의 수출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 지수가 -1이 되면 이는 완전 수입특화상태를 말한다. 수출은 전혀 하지 않고 수입만 한다는 뜻이다. 0인 경우 비교우위는 중간정도이며, 1이면 비교우위가 강하고 완전 수출특화상태를 말한다.

$$TSI_{ji} = (X_{ji} - M_{ji}) / (X_{ji} + M_{ji})$$

TSI_{ji} : j국의 i품목에 대한 무역특화지수

X_{ji} : j국의 i상품에 대한 수출액

M_{ji} : j국의 i상품에 대한 수입액

수출입액이 일치하면 이 값은 0(영)이 되고 수출총액이 수입총액에 대비 많아질수록 1에 가까워진다. 극단적으로 수출하고 수입은 전혀 하지 않으면 이 값은 1이 된다. 값이 1에 가까워질수록 수출특화상태가 높으며 그 제품이나 산업이 무역 흑자를 기록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도 그만큼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특정 품목의

무역특화지수가 상승한 값을 가지면 수출특화상태라고 표현한다.

반면 특정 품목의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적으면 이 값은 마이너스로 나타내며, -1에 가까울수록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하거나 수출이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수가 극단적으로 -1일 경우 특정품목은 완전히 수입특화 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즉 이 경우 수출은 전혀 되지 않고 수입만 이뤄진다는 얘기인데, 이는 특정 품목의 경쟁력이 전혀 없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²⁰⁾

3. 시장비교우위지수(MCA)

시장비교우위지수는 특정 국가가 해당 국가 시장에서의 점유율에 의거하여 해당 산업의 경제우위 확보여부를 추측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MCA는 특정국가 수출시장에서 특정상품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특정국가의 수출에서 동 상품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사이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수가 $MCA > 1$ 이면 이국가의 특정상품은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며, 수출경쟁력이 비교적 강하라고 분석할 수 있다. 만약 $MCA < 1$ 이면 해당국가의 특정상품은 비교우위를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수출 경쟁력도 약하다고 할 수 있다.

$$MCA_{cij} = (X_{cji} / X_{ji}) / (M_{ci} / M_i)$$

MCA_{cjj} : j국가 대 i국가에 수출한 c상품의 시장비교우위지수

X_{cji} : j국가 c산업의 i국가에 대한 수출액

X_{ji} : j국가의 i국가에 대한 총 수출액

M_{ci} : i국가 c산업에 대한 대 세계 수입액

M_i : i국가의 총 수입액

어떤 국가의 C품목의 MCA 지수는 그 국가가 특정시장에서 수출한 C품목의 비중과 그 국가의 특정시장 평균점유율의 비율을 의미한다.

20) 장원원, 「한국과 중국 안휘성간 무역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논문, 한남대학교, 2015, pp.26-27.

따라서 시장비교우위지수가 1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 해당국가 C품목은 비교우위를 갖추지 못하고 수출 경쟁력이 비교적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지수가 1보다 클 경우 그 국가의 C품목은 해당 국가 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갖추고 있고 수출 경쟁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²¹⁾

4. 무역수지기여도지수(CTB)

CTB는 한 나라의 국제 경쟁력을 측정하기 위해 j 품목의 실제 교역수지와 j 품목의 이론상 교역수지를 비교하여 j 품목의 교역수지에 관한 구조적 기여 정도를 분석하게 하는 것이다. 국가 간 비교할 때는 정규화를 위해 GDP로 나누어 사용하게 된다. CTB 지수가 양(+)의 값이면 j품목이 평균이상의 기여를 하여 적자를 감소시키거나 흑자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²²⁾

무역기여도지수(CTB)

$$CTB_j = [(X_j - M_j) - [(X - M) * \{(X_j - M_j) / (X + M)\}]] / GDP$$

CTB_j = j 상품에 대한 무역수지기여도지수

j = 품목, X=총 수출액, M=총 수입액

(X_j- M_j) = j상품의 무역수지

(X- M)=하나라의 총무역수지

5. 분석의 결과

1) 무역특화지수 분석 결과

<표3-2>에서 한국은 지속적으로 우위의 수출 경쟁력이 있는 품목은 85(전기 기기 및 부분품), 84(기계류 및 부분품), 90(정밀기기)과 73(철강제품)이다. 특히 2012년에 72(철강)의 지수가 0 값 이상을 상승하면서 수출특화상태를 되었다.

21) 傅小涵, 「비교우위 지수로 본 한중 수출경쟁력 연구」, 우석대학교 무역대학원, 2014, pp.24-25.

22) 고성철, 「우리나라 통신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 경북대학교 무역대학원, 2015, p.56.

<표3-2> 한국의 TSI 분석 결과

년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85	0.22	0.248	0.274	0.259	0.28	0.304	0.295
84	0.056	0.052	0.044	0.12	0.091	0.111	0.127
72	-0.253	-0.061	-0.066	-0.014	0.032	0.044	0.043
90	0.388	0.472	0.429	0.364	0.338	0.352	0.337
73	0.253	0.134	0.069	0.225	0.231	0.137	0.186

자료출처: UN COMTRADE 사이트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저자가 작성

<표3-3>에서 중국은 수출특화상태가 있는 품목은 85(전기기기 및 부분품), 84(기계류 및 부분품), 72(철강), 73(철강제품)이다. 90(정밀기기) 지속적으로 수입특화상태이다.

<표3-3> 중국의 TSI 분석 결과

년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85	0.124	0.105	0.107	0.118	0.121	0.121	0.147
84	0.318	0.312	0.285	0.279	0.347	0.383	0.381
72	0.371	-0.346	0.079	0.168	0.228	0.292	0.447
90	-0.285	-0.234	-0.266	-0.274	-0.187	-0.181	-0.176
73	0.643	0.583	0.619	0.667	0.695	0.692	0.674

자료출처: UN COMTRADE 사이트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저자가 작성

한국이 중국에 대하여 최근 어떤 품목과 상품에 수출특화상태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특화지수를 분석하고자 한다.

2008년부터 2014년 기간 동안 한국이 지속적으로 열위의 수출경쟁력이 있는 품목은 72(철강), 73(철강제품) 이다 (표3-4참고). 2014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한국의 수출특화상태가 있는 품목은 85(전기기계 및 부분품), 84(기계류 및 부분품), 90(정밀기기)이다. 반면 72(철강), 73(철강제품)은 한국의 수입특화상태에 있다. 하지만 90(정밀기기)은 2010년 이후 수출특화지수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주고 있다. 90(정밀기기)은 2009년에 지수의 값이 0.792를 기록하면서 점진적으로 하락하는데 2013년 지수의 값이 0.7 이하를 떨어졌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중

국이 한국에 비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품목은 72(철강), 73(철강제품)이다.

<표3-4> 한국의 對중국 품목별 무역특화지수 분석 결과

HS2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85	0.117	0.180	0.204	0.136	0.240	0.293	0.286
84	0.146	0.153	0.246	0.243	0.154	0.201	0.169
72	-0.595	-0.076	-0.260	-0.333	-0.380	-0.306	-0.390
90	0.732	0.795	0.759	0.716	0.715	0.719	0.698
73	-0.565	-0.491	-0.560	-0.604	-0.642	-0.565	-0.539

자료출처: UN COMTRADE 사이트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저자가 작성

즉, 한국의 수출특화품인 기계류 및 정밀기기와 중국의 수출특화품인 2차 산업에서 산업간 무역이 발생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중국과 한국의 교역에 있어 예상과는 달리 대부분의 산업에 있어 산업 내부 수평적인 분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특징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경제가 성장 둔화되는 경우에 중국과 한국 간에 교역품목별 경쟁력이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의 對중국 수출에 있어서 85(전기기계 및 부분품), 84(기계류 및 부분품), 90(정밀기기) 품목은 생산효율이 중국 평균 수준 보다 높은 비교우위를 갖추고 있으며 완전 수출특화상태이다. 반면 72(철강), 73(철강제품)은 중국 평균 수준 보다 낮은 비교열위로 수입특화상태이다.

2) 시장비교우위지수 분석 결과

제2절에서 설명한 시장비교우위지수를 통해 해당 국가 시장에서 경쟁력 지수를 측정된 결과는 <표3-5>과 같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은 중국에 대해 90(정밀기기)이 중국시장에서 비교우위가 매우 강한 것을 보인다. 72(철강), 85(전기기기 및 부분품)는 중국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한 것으로 (MCA지수 1.25이상) 나타났다. 반면 84(기계 및 부분품) 및 73(철강제품)은 경쟁력이 보통으로 관찰되었다. 표를 상세히 살펴보면 84(기계류 및 부분품), 90(정밀기기)은 2012년

들어서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84(기계류 및 부분품)는 2011년에 지수의 값이 1 이상을 넘어다가 2012년 이후 다시 하락을 하였으며, 73(철강제품)은 상승한 추이를 볼 수 있다.

<표3-5> 한국의 MAC분석결과

HS2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85	1.174	1.165	1.253	1.196	1.399	1.462	1.625
84	0.911	0.878	0.999	1.060	0.953	1.126	1.113
72	1.823	1.514	1.738	1.982	2.114	2.227	2.324
90	1.823	2.579	2.822	3.015	3.039	2.711	2.600
73	1.011	1.296	1.219	1.220	1.176	1.307	1.200

자료출처: UN COMTRADE 사이트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저자가 작성

<표3-6>를 보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시장에서 85(전기기기 및 부분품)의 시장경쟁력은 지속적 상승하였다. 중국산 전기기기와 부분품은 2012년부터 지수의 값이 2이상을 넘었으며, 이는 한국시장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84(기계류 및 부분품), 73(철강제품)은 2008년부터 한국시장에서 경쟁력이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84(기계류 및 부분품)는 2014년에는 지수의 값이 1 이하를 떨어졌다. 2009년 90(정밀기기)은 한국시장에서 경쟁력이 1을 넘었으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시장경쟁력이 상승하다가 2013년부터 다시 하락 추세로 나타났다.

<표3-6> 중국의 MAC 분석결과

HS2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85	1.763	1.890	1.959	2.140	2.648	2.664	2.591
84	1.204	1.311	1.135	1.128	1.085	1.060	0.977
72	2.268	1.285	1.533	1.870	1.755	1.820	1.970
90	0.840	1.086	1.228	1.561	1.399	1.393	1.212
73	2.403	2.168	2.366	2.584	2.328	1.858	1.656

자료출처: UN COMTRADE 사이트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저자가 작성

3) 무역수지기여도지수 분석 결과

<표3-7>를 통해서 보면 CTB 분석 결과 먼저, 한국은 5개의 HS코드 품목들 중 85(전기기기 및 부분품), 84(기계류 및 부분품), 90(정밀기기)은 양(+)의 값을 가지는 반면 72(철강), 73(철강제품) 등은 음(-)의 값을 도출하였다. 즉 85(전기기기 및 부분품), 84(기계류 및 부분품), 90(정밀기기)은 한국의 교역수지에 평균 이상의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철강, 철강 및 그 제품은 한국의 교역수지에 기여를 하지 못하면서 국제 경쟁력에도 큰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를 살펴보면 84(기계류 및 부분품), 90(정밀기기)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무역수지 기여도 상승하다가 2012년 이후 기여도지수를 점차적 하락하고 있다. 특히 정밀기기는 한국의 對중국 무역흑자가 큰 기여도가 있는 품목이다. 따라서 정밀기기가 하락하면 한국의 무역수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3-7> 한국무역수지기여도지수 분석 결과

HS2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85	0.0052	0.0076	0.0089	0.0063	0.0121	0.0163	0.0151
84	0.0028	0.0029	0.0049	0.0050	0.0028	0.0034	0.0029
72	-0.0107	-0.0007	-0.0018	-0.0032	-0.0033	-0.0023	-0.0030
90	0.0022	0.0137	0.0159	0.0154	0.0153	0.0132	0.0110
73	-0.0023	-0.0019	-0.0021	-0.0023	-0.0025	-0.0020	-0.0016

자료출처: UN COMTRADE 사이트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저자가 작성

<표3-8>를 살펴보면, 중국은 85(전기기기 및 부분품), 84(기계류 및 부분품), 90(정밀기기)에 대해서는 음(-)의 값이 도출되었고, 72(철강), 73(철강제품)은 양(+)의 값이 도출되었다. 85(전기기기 및 부분품), 84(기계류 및 부분품), 90(정밀기기)은 한국시장에서 국제무역수지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72(철강), 73(철강제품)은 국제무역수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72(철강), 73(철강제품)은 중국의 교역수지에 기여를 하지만 기여도 천천히 떨어지고 있다. 84(기계류 및 부분품), 90(정밀기기)은 무역수지에 기여하지 못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

<표3-8> 중국 무역수지 기여도지수 분석 결과

HS2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85	-0.0037	-0.0035	-0.0045	-0.0041	-0.0041	-0.0041	-0.0035
84	-0.0005	-0.0004	-0.0010	-0.0011	-0.0006	-0.0007	-0.0007
73	0.0019	0.0000	0.0003	0.0005	0.0003	0.0003	0.0003
90	-0.0028	-0.0026	-0.0032	-0.0027	-0.0023	-0.0020	-0.0016
72	0.0003	0.0002	0.0002	0.0002	0.0002	0.0002	0.00014

자료출처: UN COMTRADE 사이트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저자가 작성

한국과 중국의 주요 교역품목별은 무역특화지수, 시장비교우위지수, 무역수지 기여도지수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무역특화지수를 보면 한국의 對중국 수출 품목들은 국제경쟁력에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고 기술 집약적 상품들은 對중국 수출에 있어 수출특화상태가 떨어지고 있다. 둘째, 시장비교우위지수를 보면 한국의 對중국 주요수출 품목은 중국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2012년 정밀기기, 기계류의 비교우위가 하락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밀기기가 중국시장에서의 비교우위가 많이 하락했다. 마지막, 무역기여도지수를 보면 한국 對중국 주요 수출 품목은 한국무역수지에 기여하지만 기계류, 정밀기기는 2008년~2012년 기여도가 상승했다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경우에는 품목별이 경쟁력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품목별 측면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국 대중국 무역 품목별의 경합관계에 변화가 있다. 중국경제 성장률 둔화로 인해 대외무역의 하락, 대외 수요 감소, 이와 함께 경제 성장 전략 전환 등은 한·중 양국 주요 품목별의 경합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정부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새로운 경제 성장 모델로 전환하고 산업구조를 적극적으로 조정하며, 중국의 생산 기술을 제고하고 품목별의 경쟁력이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국 기업은 경쟁력과 자금률도 제고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한·중 간 주요 교역의 품목을 보면 부분품,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중국 가공무역 비중 감소 추이가 2012년 이후 가속화 되면

서 한국의 對중국 품목별 경쟁력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중국은 2013년부터 국내 소비 주도형 경제 성장 전략을 단행했다. 한국의 對중국 최종 소비재의 비중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수준은 매우 낮다.

중국경제의 성장둔화로 인해서 중국의 대외수요는 많이 하락하였으며, 한국의 對중국 수출의 총액도 하락하였다. 하지만 중국정부는 경제 성장을 다시 촉진하기 위해 경제 성장 전략을 혁신하고 있다. 한국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응대하지 못하면 앞으로 對중국 수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될 것이다.

제3절 한국 對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한국 對중국 수출 하락

중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로 인해 한국의 對중국 수출에 좋지 않은 결과를 획득했다. 한국은 수출의 약 25%를 중국으로의 수출하고 있는데, 중국 제조업의 위축, 내부 소요 부족, 증시불안에 따른 중국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소비심리위축에 따른 자금률 증가 등의 요인은 한국의 對중국 수출입에 큰 영향을 주었다.

2012년 이후 현재까지 한국의 對중국 수출 증가율은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표3-9참고). 2011년 14.8%를 넘어섰던 對중국 수출 증가율은 2012년 0.1% 하락하였고 이어 2013년 8.6% 증가했지만 2014년-0.4%, 2015년-5.6% 로 하락하였다. 한국의 對중국 수출액은 2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표3-9> 2012년~2015년 한국과 중국 무역

(단위: 백만 달러, 전년대비)

년	수출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2012	134,323	0.1	80,785	-6.5
2013	145,869	8.6	83,053	2.8
2014	145,288	-0.4	90,082	8.5
2015	137,124	-5.6	90,250	0.2

자료: 중국 상무부

2001년부터 한국과 중국의 총 수출입액에 대한 해당 국가 수출입 비중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對중국 수출은 200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3-10참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던 시기에 한차례 감소하였지만 2009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중국의 對한국 수출은 평균적으로 4%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 5.2% 비중을 차지하면서 정점을 찍고 2009년부터 점진적으로 감소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수입의 경우에도 한국의 對중국 수입은 2008년까지 증가하다가 2009년부터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對한국 수입은 2009년도에 증가하였다가 2010년부터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표3-10> 한국과 중국의 수출입 비중

(단위:%)

년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출	한국→중국	18.1	19.6	21.8	21.3	22.1	21.7	23.9	25.1	24.2	24.5	26.1
	중국→한국	4.6	4.7	4.6	4.6	4.6	5.2	4.5	4.4	4.4	4.3	4.1
수입	한국→중국	12.3	13.2	14.8	15.7	17.7	17.7	16.8	16.8	16.5	15.5	16.1
	중국→한국	10.4	11.1	11.6	11.3	10.9	9.9	10.2	9.9	9.3	9.2	9.2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stat.kita.net>)

품목별로 살펴보면 한국의 對중국 수출현황은 수출 품목 간에는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소비, 투자의 내수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품목은 호조로 보이고 있으나, 생산과정에 부품, 원재료 및 소재로 사용되는 품목의 수출총액에 둔화세가 되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다. 산업의 생산 기초재료나 부품으로 사용된 품목 중 자동차 부품, 반도체, 화공 제품 등의 경우 증가세 급격하게 둔화되거나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1) 한국 對중국 수출 하락 원인

첫째, 중국경제 성장둔화가 중국의 수입을 위축시키고, 중국 내 소비심리를 위

촉시키면서, 국내 소비 및 상업생산 둔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의 소비재 및 중간재 수입둔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2015년 한국의 對중국 수출품목의 60% 이상은 중간재임을 감안할 때 중국의 수출 감소는 곧 한국의 對중국 수출 하락을 초래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對중국 수출품목에서 수출용 부자재 및 부품 비중도 높아 중국 對외수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한국의 對중국 주요 수출대상도 주요 중국에서 투자한 한국기업들과 다른 나라의 기업이다. 이 기업들은 한국에서 원부자재 및 중간재를 조달하여 중국에서 조립 가공한 후 바로 선진국 등 제3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중국 경제 성장을 하락하기 때문에 최근 수입도 위축되면서 기업들의 한국자재에 대한 수입을 줄고 있다.

둘째, 중국정부는 성장둔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성장전략을 전환했다. 수출과 투자가 주도하는 경제 성장전략에 따라 중국경제가 고속으로 성장했다. 그런데 과잉투자, 노동력의 가격 상승이 때문에 중국경제가 성장 둔화되면서 정부는 성장전략의 전환을 통해서 경제의 성장을 다시 촉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국 경제는 소비 주도의 성장전략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의 GDP 대비 투자, 소비 비중은 2011년 각각 47.3%, 50.2%에서 2014년 각각 45.9%, 51.4%로 소비 주도의 성장을 점차 진행하고 있다. 반면, 수출은 동시기에 25.5%, 22.5%로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²³⁾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로 인해 한국의 對중국 수출 하락했으나 對중국 수출 비중에 차지한 너무 높은 가공무역에 어떤 영향을 갖고 있는지 다음 절에서 이러한 문제를 서술한다.

2. 한국 對중국 가공무역 감소

1) 한·중 가공무역의 감소 현황

중국의 가공무역이 대세계가공무역에 차지하는 비율은 48.5%로 對한국 비중인 53.0%에 비해 4.5% 낮았다(표3-11참고). 2014년 통계에 근거하면 중국은 한국의 가공무역 수출상대국 1위이다. 2014년 한국의 총 가공무역 수출액의 1.876억 달

23) 한국무역협회, 「중국 경제 하반기 전망 및 대중 수출 영향」, 제14-31호, 2015, pp.15-16.

리로 對중국 수출액은 986억 달러를 한다. 한국의 對중국 가공무역수출은 가공무역수출의 비중 51.9%를 차지했다.

2014년 한국의 對중국 품목별가공무역 수출동향을 분석하면 수출액 중 반도체(326억 달러) 및 전기기기(82억 달러), 광학기기(124억 달러)등이 상위 항목에 해당된다. 그리고 2007년 대중국 수출 상위 품목 중 반도체(76.3%), 과 광학기기(65.7%) 그리고 전기기기(73.2%) 및 휴대폰(61.8%)등이 가공무역수출에 높은 의존도를 보인 반면 화학제품, 플라스틱 제품 등은 각각 22.2%, 27.7%로 상대적으로 낮고, 섬유 제품, 자동차 부품, 석유 등은 가공무역수출액과 수출의존도 모두에서 낮다. 2014년 對중국 가공무역 수출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광학기기(70.0%), 반도체(65.2%), 휴대폰(88.6%), 전기기기(61.1%)등 이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한국의 對중국 가공무역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총수출증가율(9.0%)과 비교해 8.4%로 낮게 나타난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의 對중국 가공무역 부문수출의존도가 54.1%부터 51.9%로 줄어든다.

<표3-11> 한국의 對중국 품목별 가공무역 수출의존도

(단위: 억 달러,%)

품목별	2007년			2014년		
	총수출액	가공무역	의존도	총수출액	가공무역	의존도
반도체	220	168	76.3	501	326	65.2
광학기기	136	89	65.7	177	124	70
전기기기	79	58	73.2	134	82	61.1
휴대폰	35	22	61.8	89	79	88.6
화학공업 제품	109	24	22.2	185	51	27.7
플라스틱제품	77	47	61.5	125	51	40.9
청강제품	77	46	59.3	89	36	40.2
기계류	101	25	24.8	142	29	20.7
섬유/직물	26	22	85.7	23	15	66.5
가전제품	12	8	70.2	19	13	67.4
고무/가죽제품	13	10	72.3	17	10	61.3
자동차/부품	21	1	5.2	57	3	5.4
섬유제품	65	4	5.7	95	1	1
섬유	1	1	50.6	2	0	14.2
전체	1037	561	54.1	1901	986	51.9

자료: 해관총서:www.customs.gov.cn

2) 한·중 가공무역 감소 원인

첫째, 중국은 과도하게 수출과 투자에 의존하는 무조건적으로 경제 성장방식은 경제문제를 많이 도출했다. 중국정부는 이 경제 성장전략을 벗어나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소비를 중시함에 따라 가공무역 비중이 감소하였다. 즉 이러한 변화는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을 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에 기인한 영향이다. 특히 중국 대외수출은 가공무역의존도가 너무 높고 저부가가치 가공무역에서 탈피하기 위해 새로운 가공무역 억제정책과 산업 고부가가치 정책을 채택하다.

둘째, 가공무역 억제정책이 실행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가공무역 금지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대외무역법에서 금지한 품목으로 정의하였다. 2004년부터는 가공무역 금지품목을 HS코드 10자리로 공표하는 가운데 2009년 6월 1,759개에서 2014년 12월 1,871개로 확대하였다. 가공무역 금지품목 발표와 연계하여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률 조정 등을 통해 가공무역 제한품목도 관리하였다. 2004년 이후 무역수지 흑자에 따른 통상압력 완화를 위해 환급률을 인하하기 시작하였으나, 비효율적 산업을 구조조정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 고기술·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환급률은 오히려 인상하였다. 부가가치세 환급률이 폐지되는 품목의 경우 일반무역에서 가공무역형태로의 전환을 방지하기 위해 가공무역 금지품목으로 지정하였으며, 부가가치 환급률이 인하되는 품목의 경우는 가공무역을 전환방지와 보증금 예치 의무 부과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전환을 유도하였다.²⁴⁾

셋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개편을 가속하고 있다. 중국의 가공무역은 저부가가치 품목으로 시작해서 점차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으로 변화하였지만, 여전히 부가가치가 낮은 단계에 집중된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노동집약도가 높고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이윤도 낮은 가공무역은 중국 산업발전에 대한 기여도도 낮아질 것이다.

중국정부는 저부가가치 가공무역에서 탈피한 새로운 산업 전략을 실행하고 있

24) 김진호, 조유정, 「중국의 가공무역 억제정책과 우리나라의 대중수출」 한국은행, 2015, p.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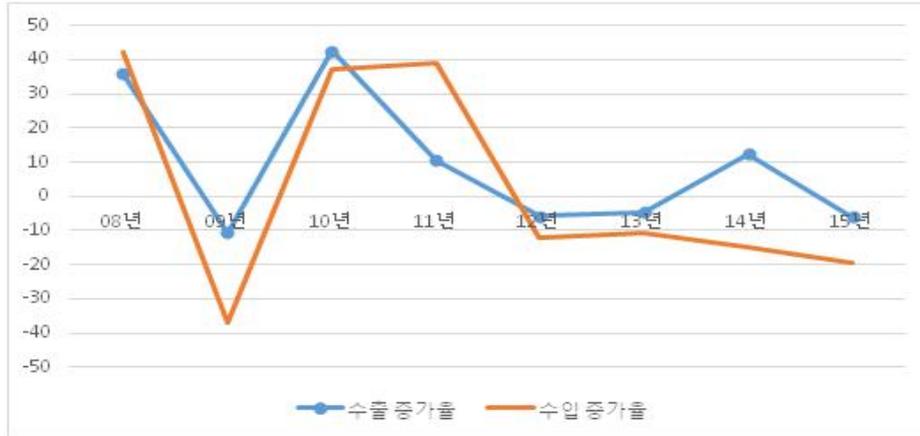
다. 2013년부터 중국은 ‘중국제조 2025전략’을 통해 제조업 선진화 방안을 추진했다. 중국정부는 신산업 모델창출이 가능한 11개 핵심 분야를 선정하여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 산업 육성을 가속하고 있다. 주요 분야는 제조업, 금융, 물류, 전자상거래, 인공지능 등 신형 산업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11개 분야이다. 중국정부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신성장 동력을 추진하면서 인터넷경제와 실물경제의 융합 발전 체제 구축을 위해 ‘인터넷 플러스 산업융합 발전 플랜(2015년 7월)을 제시했다. 이는 모바일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인터넷 기술과 전통산업 간 융합을 통해 산업구조의 재편을 도모하는 계획될 것이다. ‘중국제조 2025’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형 고부가 제조업 육성 정책도 앞으로 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²⁵⁾

3) 한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가공무역 비중 감소는 한중 무역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줄 것이다. 우선, 중국의 가공무역기업이 주로 외자기업 위주에서 중국 국내기업 참여확대로 바뀔 경우 한국의 가공무역에 관련한 기업, 특히 한국의 중소기업에게 경영악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결국 한국을 비롯한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가공무역에 대한 입지가 서서히 줄어들 것이고 한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둘째, 중간재의 수입을 줄이고 국산화 비율을 제고하겠다는 중국의 정책방향을 추진하게 된다면 한국의 원자재 수출에 비상이 걸리게 될 것이다(그림3-1참고). 현재 한국은 중국으로의 원자재 수출이 2001년도에 18,190백만 달러에서 2011년 말 기준 134,185백만 달러로 10년 동안 상당한 증가를 하였다. 그러나 2009년에 급격한 감소를 보이면서 증가폭도 다소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5) 현대경제연구원, 「양회(兩會)와 중국 경제의 향방」 전계 논문, pp.4-5.

[그림3-1]한국의 중국으로의 원자재 수출·입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stat, kita.net](http://stat.kita.net))

셋째, 가공무역 감소현상은 중국의 교역구조가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對중국 교역구조를 적절히 변화시켜 대응하지 않는다면 차후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가공무역비중이 감소하면서 금속제품과 특수기계 등 기존 내수용도로 주로 수출되었던 중간재는 중국 전체 시장 평균보다 내수용도로 전환폭도가 컸지만, 반도체와 컴퓨터 부품, 전기전자기기 등 기존 수출용도로 주로 사용되었던 중간재는 내수용도로 전환이 제한적이었던 것이다.²⁶⁾

26) 김경희, 유승균, 「FTA 시대에 중국 경제의 성장문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2015, pp.38-39.

제4장 중국경제의 성장둔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 방안

제1절 신산업의 육성

한국의 對중국 주요 무역 품목이 전기기기, 정밀기기, 기계류 등의 부품 위주의 중간재 및 원자재 위주였다면, 중국 경제정책에 맞는 비즈니스모델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의 수출입 품목과 경합관계를 보더라도 원자재 및 중간재 위주의 교역이 전체 수출입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서비스 산업으로 선회합과 동시에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對중국 수출이 중간재, 원자재가 편중되었으나, 중국시장의 변화에 적합한 신소비재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1. 서비스산업의 촉진 발전

중국의 개인 소득이 증대되면서 중국 내에서 관광, 의료, 교육, 레저 등의 서비스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나, 동 부문에 대한 한국기업의 현지 진출이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2015년 누적 기준으로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약 70% 이상이 제조업 관련 기업으로 교육·의료 등 서비스업 진출은 아직 11%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중국 서비스 시장에 대한 부족한 정보, 많은 서비스무역장벽, 제조업에 편중된 금융지원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서비스시장에 진출이 저조한 이유로는 관계법령 등의 정보가 부족하고 제조업부분으로만 대부분의 금융지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2014년 말 기준으로 서비스산업에 관한 금융지원 비중은 전체의 약 15%에 불과하다.

더불어, 방송통신, 금융, 건설 부문에 대한 투자 및 입찰 자격 제한 등 높은 진

입장벽들도 주요 애로 사항으로 언급된다. 향후 한국기업의 중국 서비스시장에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유망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제조업에 편중된 투자 체계를 개편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중 서비스무역의 발전 추세를 살펴보면 서비스산업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함께 1990년대 세계적인 현상으로 대두되었으며, 서비스무역 자유화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지역경제통합이 2000년대 급격히 확산되면서 서비스산업의 비중 또한 증가되고 있다. 2013년 12월 현재 WTO에 따라 통보된 지역무역협정(RTA)을 발효한 건수는 총 351건이며, 이 중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이 204건, 서비스 협정이 73건, 개도국 간 특혜협정이 38건, 관세동맹(Customs Union)이 36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여러 국가들 간 지역무역협정을 협상 또는 공동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지역자유협정 건수는 더욱 확대될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무역협정의 증가하는 가운데, 서비스무역의 장벽 철폐를 위한 각국의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 시점에서 세계 무역환경과 글로벌의 무역량에서 서비스무역의 비중이 점진적 증가하고 있고, 한국 또한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흐름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다. 2015년 현재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성장한 중국과 함께 한국과 일본을 포함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은 미래의 세계경제를 이끌어갈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은 일반무역에 있어서는 무역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서비스무역에 있어서는 양국 모두 무역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한·중 양국도 세계적 추세인 지역무역협정을 통한 무역자유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며, 한·중 간 FTA를 체결한 상황이다. 양국 간 서비스무역 자유화의 이익은 국내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경쟁으로 전반적인 서비스산업의 효율성 증대에서도 찾을 수 있다. 또한 제조업에 비해 취약한 서비스산업의 시장개방에 대비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한국과 중국 모두에게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으로 유효할 것이다. 그동안 재화무역과는 달리 한국의 수출경쟁력 강화 노력에서 배제되어 있던 서비스무역에 대하여 이제는 관심을 재조명해야 할 것이며, 한·중 양국의 효율적인 협력을 위한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한·중 양국의 서비스산업의 부문별 비교우위를 분석함에 따라 양

국 간 시장경쟁력을 분석한 후 향후 양국 간 서비스산업의 국제 분업에 대해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對중국 수출 유망 산업의 육성

1) 청정/환경

중국의 환경오염이 급속도로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용수, 공기 등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을 증대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환경정책 등의 강화로 청정 관련된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공기청정기 및 정수기 등의 중국 제품시장 진출 및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 가정용 공기청정기의 경우 2012년부터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53.0%로 1위를 기록하였다.

2) 화장품/위생

한류가 확산되면서 한류스타와 한국 화장품 기업이 연계된 마케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피부미용상품의 경우 중국 수입시장에서 점유율이 2013년에는 11.1%(4위), 2015년에 23.6%(2위)로 상승했으며, 입술 화장품과 샴푸 등의 수출 또한 2014년에 동기 대비 각각 630.3%, 259.1% 확대하는 등 관련된 분야 수출 증가세를 볼 수 있으며, 시장잠재력 또한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3) 영유아 용품

2016년부터 중국정부는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全面二胎)을 실행함으로써 유아 용품 시장을 확대하는 것을 예상되는 가운데, 기저귀와 조제분유에 대한 2015년 상반기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0.1%, 77.1% 상승하며 시장점유율을 제고하고 있다. 특히 유통기한이 짧은 영유아 우유는 항공으로 운송해야 하기 때문에 호주 등 생산국가보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선박운송으로 운송비용 절감이 가능하여 꾸준히 수출이 확대될 수 있다.

4) 식음료

중국인이 생활수준을 향상하고 개인소득을 증대함에 따라 먹거리에 대한 중국인들의 소비가 확대되고 있다. 중국 수입시장에서 점유율이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산 김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 88.4%를 기록하였으며 중국내 김 시장을 확대시키고 있다. 또한 중국 국내 소비 고급화로 맥주시장에서 맥주소비를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의 對중국 맥주 수출도 지난 5년간 연평균 41.0%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수출을 확대되고 있다.

5)의료용품

점진적인 인구고령화로 실버산업에 대한 중국내 소비 수요와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주사기, 초음파기기, 치과용기기, 항생제 등 일부 의료기기와 의약품 수출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²⁷⁾

제2절 한국 대외수출 촉진 전략

1. 한국 對중국 내수시장에 진출

중국경제의 성장률 둔화로 인해 중국 대외 수요 하락되면서 한국의 對중국 수출도 하락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경제성장 패러다임 전환하는 가운데, 소비시장의 질적 양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소비시장은 1인당 국민소득 증가하면서, 중국 국내소비 수입총액은 2013년에는 4.7조 달러, 2020년 9.9조 달러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한국은 중국 내수시장을 목표로 한 수입품목별 전략을 수립하여 소비재 수출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독일과 미국이 중국 소비재 수입시장의 약 30%를 점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對중국 소비재 수입시장 점유율은 2007년 5.7%에서 2014년 3.4%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품목별을 보면 한국의 對중국 소비재 수출의 약 60%가 수송기계, 가전제품에 편중되어 있으며, 한국의 對중국 농산물 소비재 수출비중은 4%에 불과한 실정한다(그림4-1참고). 또한 2015년 6월 기준 한국의 對중국 수출은 자동차 부품 등 중간재 수출이75%에

27) 이용수, 「최근 대중국 수출 유망품목과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2015년8월, pp.4-6.

달하나, 소비재 수출은 4.7%로 불균형 현상이 매우 심한 실정이다.²⁸⁾ 이와 같이 중국 시장으로의 소비재 수출이 하락하는 이유를 검토해서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한 한국 경제의 직접적인 악영향을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림4-1] 한국의 對중국 소비재 수출 현황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kita.net>)

중국 소비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첫째, 화장품, 유아용품, 의료용품 등 對중국 수출 유망품목(5개 분야 100 여 개 품목)에 대한 수출 전시회, 중국 현지 대형 유통망과 연계한 전시회 및 판촉전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둘째, 중국 전자상거래와 내수시장 진출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 중국 B2B전자상거래 시장 공략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B2B전자상거래 상품 구축지원을 확대하고, 對중국 전자상거래 판매 전문기업·내수기업과 알리바바(阿里巴巴), 징둥(京東) 등 주요 전자상거래 기업과의 협력 등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독특한 관세구조가 최종 소비재와 일부육성의 수입품에 높은 관세 집중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원활한 내수시장 확보를 위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2. 신흥 시장 개척

중국 경제가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을 지속하지 못하면서 최근 對중국 수출 증

28) 박중국, 송용원, 「중국 경제현황 진단과 우리의 대응방안」, 전개 논문, p.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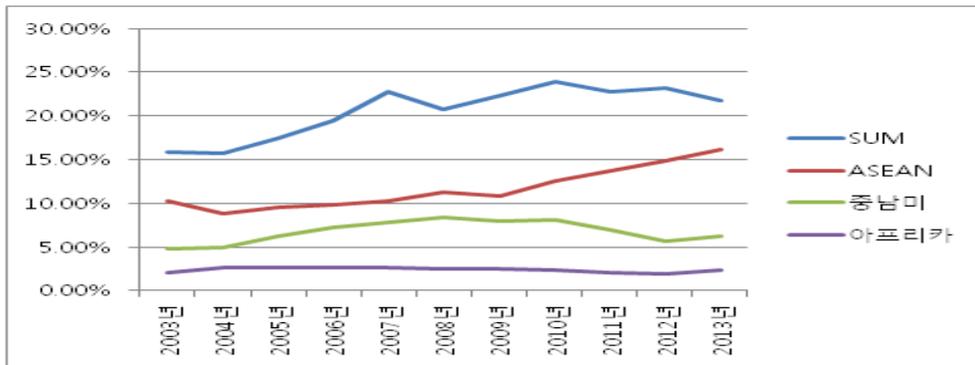
가세도 하락되고 있다. 중국에 수출비중이 편중된 한국의 경우 상당히 큰 타격이 예견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과 가장 유사한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중국보다 모든 부분에서 비교열위를 갖고 있는 인도 등 신흥국시장으로 진출하여 수출 구조를 다변화함으로써 한국의 안정적 경제발전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15년 들어서 한국 수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수출액이 연속적으로 감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 2009년 이후 처음이다. 내수부진과 함께 대외수출마저 활력을 잃으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한국 대외수출을 감소한 원인은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와 세계무역의 구조적 환경 변화가 때문이다. 한국은 대외 수출동력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국내 산업의 부가가치와 경쟁력을 한 차원 제고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중국 이외에 신흥 거대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다행히 이를 위한 토대는 이미 만들어져 있다. 그 동안 한국은 적극적으로 추진한 FTA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는 베트남, 태국 등을 포함해 모두 52개국에 달한다. 한국의 실제 국토 면적은 지구 전체의 0.1%도 안 되나, 자유무역협정과 투자 활동을 통해서 한국 경제 영토는 전 세계의 74%를 획득하게 되었다. 특히 세계 경제성장의 새로운 신흥국으로 주목 받고 있는 중국을 비롯한 아세안, 인도 및 태국 등과 한국은 모두 FTA를 체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주력 제품과 서비스 산업 등도 이들 시장에 최대한 진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시아 주요 국가의 경우 한류가 확산되면서 이를 최대한 활용한 마케팅 전략이 효과적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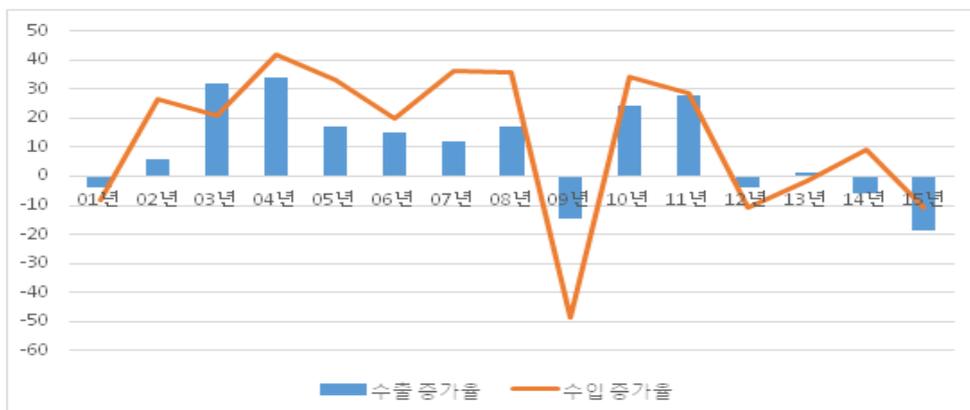
[그림4-2] 한국의 對신흥국 교역 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kita.net>)

특히 인도 시장의 가치는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인도는 정반대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인도는 중국의 10년 전 경제를 따라 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인도시장은 10%가량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중국시장을 맹추격을 하고 있으므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도시장을 신흥시장으로 개척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인도는 한국의 9위 수출 국가이고,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를 맺고 있다. 인도와의 교역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미국, 일본, 중국이 인도시장을 겨냥하고 있으므로 한국도 서둘러 진출하여 시장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²⁹⁾

[그림4-3] 한국의 對인도 수출입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

29) 김경희, 유승균, 「FTA시대에 중국 경제의 성장둔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전계 논문, p.45.

제3절 한국 가공무역의 수출 활성화 전략

1. 한국정부 對기업이 한·중 FTA 활용 지원

중국경제의 성장률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의 성장 전략은 내부 소비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산업 생산력 제고, 무역 부가가치 확대 등을 진행하며 중국 가공무역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이는 對한국 가공무역기업들의 기업경영 악화, 기업소득 감소 등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의 가공무역기업들은 이런 악조건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정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한·중 FTA 관련 정책을 계획하면서 지원을 하고자 하고 있다. 한·중 FTA 활용 지원 계획은 신속한 통관, 투자환경 개선, 비관세장벽 제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한국 가공무역기업들은 장기적으로 부가가치 낮은 단순 가공무역을 탈피해 부가가치 높은 내수소비형 품목으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한국가공무역기업들은 한국정부의 한중 FTA 활용 지원 계획을 통해서 중국내수시장에 진출한다면 급격히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정부 對한국기업들은 對중국 수출을 강화하기 위해 비관세 장벽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중국 현지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해외지사 대행사업 확대 및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등으로 현장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해 전문무역상사 활성화를 통한 간접적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무역전문가 매칭을 통한 수출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률 증가를 위해 FTA활용을 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 협정별 맞춤형 컨설팅을 시행하고 주요 10대 산업단지 등 FTA 전문가를 파견할 통해 FTA활용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에 한·중 FTA 활용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을 위해 크게 세 가지 지원계획을 마련하였다.

첫째, 한중 FTA 활용 지원한다. 컨설팅과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대중국 수출기업 중 FTA를 활용한 경험이 없는 25,000개사 대상은 홍보, 무역정보·교육·컨설팅을 지원한다. 지원한 정부부처는 산업부,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이 있다. FTA활용이 바이어 요청에 따라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중국은 현지 FTA활용 설명회 및 현지 바이어 초청 행사를 개최한다. 중소기업에게 정보를 제공한 설명회는 한·중 FTA 종합대전, 현지 FTA활용 설명회에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칭다오(靑島), 청두(成都) 등 10회가 있다.

또한 유통 방면은 지역별 로컬유통망을 활용하여 對중국 시장에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별 독자적 시장에 진출을 통해서 내수기업이 수출기업화로 될 수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對 중국진출을 지원할 것이다. 중국국내에 소비재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2, 3선 도시대상으로 주요 통관지원 및 홍보마케팅, 유통채널 진입 등 패키지 지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중국에 관한 투자를 유치한다. 식품, 복합리조트, 문화콘텐츠 등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의 투자를 중점으로 유치하는 것으로 투자 장벽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전담팀을 가동하고 한국경제에게 기여도가 높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현금·입지·조세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한다. 복합 리조트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부동산 투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등을 조기 확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통관, 비관세 장벽을 해소한다. 정부 간 고위급 채널 및 한·중 FTA 이행기구를 활용하여 비관세 무역장벽을 해소한 노력이 강화한다. 2016년에 신설되는 장관급 한·중 품질검사검역회의를 통해 핵심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를 추진한다. 특히 원산지에 관한 한·중 세관 간 ‘원산지 자료교환시스템’ 구축하여 중국 통관 시기에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신속 통관을 가능하다. 이를 통하여 對중국 검사비용 절감, 수출 통관기간 단축 및 수출제품 개발함으로 對중국 수출증진과 수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다.

2. 중국 B2B전자상거래³⁰⁾ 활용

한국 중소기업들은 중국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중국 내수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다. 한국 중소기업들은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국 시장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며 중소기업의 진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국 전자거래시장이 발전하면서 시장 내 B2B플랫폼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 중국 내수 시장에 진출하려면 한국 중소기업들이 기업의 제품 유형 등의 요소를 정확히 고려하여, 회사의 특성에 적합한 B2B플랫폼을 잘 선택해야 한다. 알리바바(阿里巴巴)는 규모가 가장 큰 B2B플랫폼이지만, 이와는 차별화 된 다른 B2B플랫폼을 선택하거나 동시에 다중이 B2B플랫폼을 활용하는 것도 완벽한 전략이라고 본다.

둘째, 대형 B2B플랫폼에 가입하여,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하려면 대형 B2B플랫폼 자체의 영향력으로 시장에 진입한 초기에는 더 쉽게 주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시장에서 같은 업체들과의 상호 경쟁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세분 시장 특성에 적합한 소규모 B2B플랫폼을 활용하는 것도 한국 중소기업들이 중국 전자거래 시장 진출 한 전략이다.

셋째,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입지를 굳힌 현지 대리상을 통하여 중국 내수 시장을 진출할 수 있다. 현지 인력 부족한 한국 중소기업 비해 현지 대리상은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대해 더 많은 정보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 대리상을 통해서 중국 내수 시장 진출할 수 있다.³¹⁾

30) B2B: 제조회사와 도매업 사이 혹은 도매업과 소매업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거래를 말한다. 처음 B2B라는 용어는 소비자
자와 기업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로 기업의 자본재 혹은 산업용품 등의 마케팅에 국한된
뜻을 갖는 용어로 쓰였다. 그러나 현재 B2B라는 용어는 기업이 제공하는 모든 물품과 서비스를 뜻한다.

31) 진이연, 「중국B2B전자상거래 시장분석 및 한국중소기업의 진출 전략」, 학위논문분석사,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4, pp.52-54.

제4절 양국 협력패러다임 구축

1. 상호 윈윈(win-win)의 협력패러다임 모색

1) 중국정부와 협력강화 채널구축 및 비전공유

한국과 중국 간에는 상호 협력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에 관한 공감대 형성도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상호협력을 통해 한국과 중국은 무역에 유리한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고,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성공적으로 완수함과 동시에 공업 과잉생산량을 도출할 수 있다는 비전을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

상호 윈윈의 비전을 공감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시키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 산업계, 학술계가 참여하는 ‘한중경제협력포럼’과 같은 공식적, 정기적 협력채널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 전문가들의 상호간의 긴밀한 접촉과 이해 심화를 통해 상호 윈윈 전략을 모색하고 이를 양국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주요 세부 업종별로 도분과 위원회를 설립한 정책, 양국 시장 정보 교류를 주제로 모임을 정례화 하고 상호 정보를 교류할 필요성이 있다.³²⁾ 주요 의제별로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현안을 해결하거나 협력을 심화시킬 수 있다.

중국과 한국은 상호 목표를 일치하고 상호 협력 패러다임이 가능성이 높다.

2013년 중국 제시한 일대일로와 비슷한 시기에, 한국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시하였다. 일대일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유라시아대륙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전략적 목표가 일치한다는 점에서 상호간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확대 되었다. 한중 양국은 FTA 타결 이후 관계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양국은 일대일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협력방안을 구축한 필요가 있다.

또한 2014년 3월 독일 드레스덴에서 한국 박근혜 대통령은 동북아 개발은행

32)顾雄飞, 「安徽省加工贸易经济效应的实证研究」, 安徽工业大学, 硕士学位论文, 2011, pp.33-34.

을 제안하였다. 중국이 제시한 AIIB와 동북아 개발은행은 상호 보완하고 상호지지한 협력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필요하다.

2) 상호 윈윈의 전략적 협력 산업 선정

상호 윈윈을 위해서는 양국이 전략적으로 무엇을 협력할 것인가를 정부차원에서 협상하고 이를 기업들에게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양국 협력 산업 선정 시기에는 중국이 추구하는 산업육성정책과 한국의 비교우위를 동시에 반영함이 바람직하다. 한국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반도체, 정밀기기, 전기기기 산업 등이 있다. 한류와 문화산업, 교육산업을 포함한 지식서비스산업에서도 한국은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전략적 신 육성 산업(에너지절감, 환경 보호 제품, 첨단설비, 신소재제, 바이오, 신에너지 자동차, 정밀기기) 등에서도 양국 간 전략적 제휴 가능성은 너무 높다. 상호간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공동 연구개발, 공동 제조, 공동 판매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면 한국은 중국 내수시장진출에 있어, 중국 내 산업 경쟁구조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³³⁾

한국과 중국 지난 20여 년 관계를 돌이켜 보면 협력 산업분야가 점차 확대되었고 상호 의존 관계 역시 날로 긴밀해져 왔다. 일대일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여러 면에서 비슷한 점이 있다. 한국과 중국은 이미 서면한 한·중 FTA를 통해서 정보 통신, 해상운송, 에너지 차원 등 여러 분야의 협력을 강화 할 수 있다. 양국의 산업 구조최적화를 촉진하여 한중 경제 무역 협력 수준을 전면적으로 강화하여 유라시아 경제를 함께 이끌어 간다. 중국은 일대일로가 건설업을 많이 필요할 수 있다. 한국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한국의 건설 및 원자재와 관련 기술 수출 등을 적극 장려한다면 시장 선정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2. AIIB와 동북아 개발은행

2013년에는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習近平)이 아시아를 순방하던 중 공식 제안

33) 何莎, 「安徽省对外贸易结构与产业结构关系研究」, 安徽工业大学, 硕士学位论文, 2013, pp.15-16.

하였고, 2014년 10월에 500억 달러 규모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AIIB)의 설립을 공식 선언하였고, 2015년 말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부는 중국 북경에 위치하며, 총회·이사회·사무국으로 구성된다. 설립한 초기에 자본금의 대부분을 중국이 투자하여 500억 달러 규모로 시작된 AIIB의 총 자본금은 각국의 투자액이 1000억 달러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중국이 인프라투자은행을 적극적으로 설립하려는 목적은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를 시작하였다. AIIB의 성립 후에 중국이 위안국제화를 앞당기려고 추진한다. 중국은 아시아 지역의 금융 지위가 높아질 것 이라고 보다. 현재 중국은 무역 수출 산업구조에서 금융 수출 산업구조로 전환을 보이고 있다. 금융 수출 국가가 되면 위안 국제화 필요하다. AIIB와 브릭스 개발 은행³⁴⁾이 다각 간 경제 협력 개발 기구를 성립하기 때문에 위안은 국제화가 될 수가 있다. AIIB는 비록 자본금으로 달러를 계산하지만 나중에 위안이 포함된 통화 바스켓을 AIIB의 결제 통화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³⁵⁾

2015년 3월 27일 한국 정부는 AIIB에 예정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겠다고 표명하였다. <AIIB 협정문>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투표권에 3.5%를 가지고 있다. 한국과 호주는 지분이 공동 5위에 있다. 한국이 개발도상국에 광범위한 인프라 시설 산업을 진행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한국은 AIIB에 가입되고 한국의 제조업, 관광업 등 활성화되고 경제적으로 발전을 이룰 수가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 국내 산업은 AIIB가 아시아 지역 내 교역을 확대하고 지역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을 참여하는 기회도 늘릴 것으로 기대하였다. AIIB에 중국, 한국, 러시아가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동북아 지역에 국제무역 센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 등 AIIB에 투자하는 시범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한국 매우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서 또한 향후 남북통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로서 중국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고 한중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 AIIB는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설립된

34) 브릭스 개발 은행:미국 주도의 국제금융 체제를 견제하고 세계 금융기구의 재편을 위해 중국 주도로 브릭스 5개국이 출범시키는 금융기구이다. 2012년 3월 브릭스 국가 정상들이 설립 논의를 시작한 이후 자본금 출처 규모, 본부 입지, 운영 방식 등을 놓고 이견차로 합의에 어려움을 겪다 2014년 7월 브라질 포르탈레자에서 열린 제6차 정상회의에서 2016년 NDB를 출범시키는 데 합의하였다.

35) 刘翔峰, 《亚投行加速人民币国际化》, 中国经贸导刊, 2015, pp.41-43.

기구인 만큼, 한국정부는 건설과 엔지니어링 부문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많은 한국 기업들이 AIIB의 본격 활동으로 전개될 무궁한 인프라 시장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AIIB 와 동북아개발은행의 협력을 추진하면 채권을 발행하는 신용등급의 수준이 높다. AIIB의 주요 관심 지역은 일대일로,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이다. 이러한 한국정부 주도하는 동북아개발은행은 AIIB와 보완적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중국 일대일로를 한반도까지 연결해 아시아 역내 경제통합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IIB의 설립 및 운영에 낮은 채권을 발행하고 높은 신용등급을 받으려면 아시아 역내 한국 필요하다.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이 성공하려면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고 AIIB는 동북아 지역에 충분히 투자를 해야 한다.³⁶⁾

3.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1)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2012년 이후 중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률 둔화에 대응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중국이 주창한 ‘일대일로(一帶一路)’프로젝트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일대일로’란 하나의 지역과 하나의 길, 즉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를 각각 일컫는 것으로 지난 2013년 10월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중국 시진핑 주석이 ‘해상 실크로드’의 공동건설을 제안하였으며, 2014년 4월 보아오포럼 개막 연설에서 리커창 총리가 이 두 가지를 ‘일대일로’라고 지칭하면서 표면화되었다. 일대일로는 그 구상에 포함된 국가의 주요 지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인구 63%, 경제 규모 29%, 교역 규모 23.9%에 달하는 지역을 포괄한 거대 프로젝트로 투자규모가 중국 내2,198억 달러를 포함해 8,00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국가 경제 전략은 북방 육상 실크로드와 남방

36) 장천소,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출범과 전망」 동의대학교 동아시아국제대학원, 석사 논문, 2016, pp.37-38.

해상 실크로드로 유라시아에 경제공동체 나가서는 문명공동체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밖에서 경제성장 동력을 찾고 안으로는 제2의 경제도약을 이루고 외적으로 팽창 전략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지역경제통합을 주도한다는 것이다. 일대일로 경제 전략은 고속성장기에서 중속 성장기로 진입하고 있는 중국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통해 일자리 창출, 전통산업의 공급과잉 문제 해소 등 추진하고 있다. 전환 시기에 직면한 중국경제는 4조 위안에 달하는 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2012년 기준 설비 가동률이 71%대에 머무는 등 성장률 회복이 기대에 미흡한 실정이다.

<표4-1>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 관련 5通의 주요 내용

분양	주요 추진 내용
정책조율 강화	-일대일로 구상 관련 국가의 정책교류 확대를 통해 지역협력 기반 구축
인프라 정비	-국가 간 기초설비건설계획, 기술표준시스템 연계 강화 -항만기초설비건설, 육로 및 수로 연결망, 항공망 등 협력 강화 -에너지기초 설비 연계망, 광케이블 등 상호 연결 및 건설 협력 강화
교역 활성화 촉진	-공동 자유무역지대 건설 확대 추진 -검역, 인증 등 각국의 비관세 무역장벽 완화 -상호간 무역, 투자 등의 협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규범 마련 -IT, BT, 신에너지, 신소비재 등 영역 협력 확대
민간 교류 활성화	-문화, 관광 등 방면의 교류 확대

자료: 이봉걸(2015), “중국의 꿈 일대일로 프로젝트 현황과 영향” 국제무역연구원, 인용

한국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하는 가운데, 일대일로와의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 철도망을 유라시아 철도망과 연계를 통해서 유라시아 경제통합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열차 페리 활용하는 동시에 북한을 경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 있다. 둘째, 중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으로 부상이 예견된 내륙벨트에 대한 한국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를 전망할 것이다. 셋째, 일대일로 AIB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한국기업의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를 전망할 것이다.

2)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2013년 10월 18일 한국 박근혜 대통령은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국 수출입은행 공동 주최로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유라시아 시대의 국제협력 컨퍼런스 기조연설을 통해 유라시아 지역을 하나의 대륙, 창조적 대륙, 평화의 대륙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부산-북한-러시아-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관통하고, 전기, 가스, 송유관 등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라시아는 세계 대륙 면적의 40%, 세계 인구의 7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대륙으로 그 중요성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미국 편향적 경제관계 개선을 위한 아시아와 유럽 간 물류 연결에서 한국 지리적으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한국과 중국, 일본, 몽골 등 유라시아 지역 간의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고, 사실상 단일 경제권으로서 역외 지역과 연계하려면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역내 평화와 안정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양국의 협력의 필요성

중국의 일대일로는 물론,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도 유럽과 아시아를 주요 협력 대상으로 한 것은 유럽과 아시아가 전 세계 대륙 면적의 40%를 차지하고 전 세계 인구의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중국 일대일로 노선에는 비록 동북아시아 지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중국 주변국 외교의 핵심이 동북아시아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는 상호 보완이 가능하며 건설 중에 부딪히는 여러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의 협력 구상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제시했다.

중국은 일대일로의 주된 목적은 유라시아 대륙의 경제통합을 바탕으로 지역 협력의 플랫폼을 형성하는 것이다. 한국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시한 핵심은 한국을 시작으로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육지의 교통과 에너지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것이다. 한국은 앞으로 다자개발기구를 설립하여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과 함께 리스크를 감수를 제의할 것이며, 한중 양국은 함께 번영의 길을 찾아

나설 것이다. 일대일로 전략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효과적으로 연계된다면 한·중간 경제 협력 분야가 한층 강화되고 자유무역지역 건설을 촉진할 수 있다.³⁷⁾ 한·중 양국은 일대일로 전략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잠재된 이익을 접점으로 한 한·중 양국의 새로운 협력 방안을 강구한다면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이룰 것이다.

37) 정월, 「중국 일대일로 전략 구상에 대한 고찰」, 동아대학교 국제 전문대학원, 2015, pp.42-44.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투자와 수출에 의존한 경제 성장 전략으로 눈부신 고도 성장을 하였다. 2015년 중국의 GDP는 약 12조 달러에 달했으며 2010년 이후 미국에 이어 세계 제2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2009년 이후 독일을 추월하고 세계 최대의 수출국이 된 것도 불과 30여년 만에 이룬 놀라운 경제 성과이다. 그러나 성장을 가속화 시켰던 경제 성장전략이 한계를 직면하고, 더불어 2008년 금융위기 영향으로 대외경제 환경이 불안해지면서 2012년 중국경제는 많은 문제점을 표출하게 되었다. 과잉투자, 내부수요의 부족을 때문에 중국 경제는 성장둔화한 추이가 뚜렷하게 지표에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중국 각종 경제지표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대외무역은 위축되었다. 그리고 중국정부는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동안 추진했던 중국 경제성장 전략이 더 이상 중국의 성장을 보장할 수 없음을 깨닫고 개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정부는 경제 성장의 동력을 내부에서 찾을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기존의 투자와 수출형 시장전략을 투자와 소비형 성장전략으로 바꾸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경제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한국과 중국의 대외무역관계가 증대됨으로써 한국기업의 중국으로 투자와 무역량은 급격히 상승해왔다. 한국과 중국의 무역관계는 수교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해 왔다. 중국과의 무역은 중국 경제의 고속 성장 이후 한국의 매우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 되었으며, 한국은 중국의 제3대 무역 대상국이 되었다. 한국과 중국의 무역관계를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對중국 수출의존도는 매우 높기 때문에 중국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한국무역 또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관련하여 한국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였다. 우선 한국의 對중국 수출하락의 추이를 살펴보았고

다음으로는 한국과 중국 교역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가공무역 비중 변화가 한국 중소가공무역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수출입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품목 중 HS(85,84,72,90,73) 해당되는 품목들에 대해 경쟁력 분석을 하였고, 그로 인해 경쟁관계를 살펴보았다. 한국은 대중국 수출품목의 경쟁우위를 변동하는데 중국의 수출품목의 경쟁우위를 점차적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한국의 대응 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한국은 대중국 수출 품목 중 소비재 수출을 확대하여 중국 내수 시장 확보하고 현지화 하여 중국 시장에 적합한 수출유망품목의 개발을 해야 한다. 둘째 한국의 무역 다각화 방안은 신흥 시장 개척을 제시하였다. 해당 국가로는 중국과 가장 유사한 시장인 동남아시아, 인도 등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장을 진출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셋째, 한국의 가공무역기업은 한·중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에 진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중국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일대일로로 신경계전략 등을 통해서 협력패러다임 구축과 현지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최근 중국과 FTA를 체결하였다. 향후 한중간 교역규모는 더욱 더 커질 것이고, 이로 인해 더욱 친밀도가 커질 것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 경제 성장을 변화에서도 보았듯이 성장둔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한국이 경험할 경제적 쇼크는 이전보다 더 커지게 될 것이다. 한중 FTA 체결로 인해 원활하고 더욱 더 큰 무역증대를 확보할 수 있겠지만, 중국 경제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중국에 편중된 교역구조를 이어갈 것이 아니라 제3의 시장도 살펴보고, 주력 산업에 대한 변화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본 논문은 중국경제의 성장둔화가 한국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를 위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을 하였으나, 품목별을 분석할 때 양국 무역비중에 차지한 높은 주요 품목별만 분석하고, 다른 품목별을 분석하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 다

라서 중국경제가 성장둔화가 시작한 시간이 오래 아니기 때문에 한국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 참고 문헌 >

1. 한국 문헌

- 김진호, 조유정, 2015, 「중국의 가공무역 억제정책과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한국은행, p.3
- 김경희, 유승균, 2015, 「FTA 시대에 중국 경제의 성장둔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pp.38-39
- 고성철, 2015, 「우리나라 통신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 경북대학교 무역대학원, P.56
- 를 양, 2013, 「WTO가입 후 중국 대외 통상정책의 변화가 중국진출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pp.36-37
- 박종국, 송용원, 2015, 「중국 경제현황 진단과 우리의 대응방안」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연구소, pp.6-12
- 승리, 2015, 「중국경제 형세 및 정책전망」 NDRC 경제연구, pp.1-3
- 이용수, 2015, 「최근 대중국 수출 유망품목과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pp.4-6
- 이봉걸, 2015, 「중국의 꿈 일대일로 프로젝트 현황과 영향」, 국제무역연구원, pp.3-4
- 장천소, 2016,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출범과 전망」 동의대학교 동아시아국제대학원, 석사 논문, pp.37-38
- 장원원, 2014, 「한국과 중국 안휘성간 무역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논문, 한남대학교, pp.26-27
- 정월, 2014, 「중국 일대일로 전략 구상에 대한 고찰」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pp.42-44
- 진이연, 2014, 「중국B2B전자상거래 시장분석 및 한국중소기업의 진출 전

- 략」, 학위논문(석사)건국대학교 대학원, pp.52-54
- 천용차, 2016, 「최근 중국 경제의 리스크 점검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p.12
- 한국무역협회, 2015, 「중국 경제 하반기 전망 및 대중 수출 영향」, 제 14-31호, pp.15-16
- 현대 경제연구원 「한중 경제의 중요성과 나아가야 방향」 제16-8호, pp.3-7
- 한재진, 2016, 「2016년 양회(兩會)와 중국 경제의 향방」 현대경제연구원, p.3
- 傅小涵, 2014, 「비교우위 지수로 본 한중 수출경쟁력 연구」, 우석대학교 무역대학원, pp.24-25

2. 중국 문헌

- 劉敬東, 貿易政策審議, 「WTO秘書處關於中華人民共和國的報告」, 中國財政經濟出版社, 2006, p.10
- 黃濤, 「中國經濟增速放緩是必然的, 偶然的」中國人民大學校, 國際貨幣研究所, 2015,7, p.12
- 于立, 張杰, 「中國產能過剩的根本成因與出路非市場因素及其三步走戰略」, 《改革》, 2014,2, pp.40-51
- 王今朝 「核心消費決定論——從市場與消費的結構性扭曲看中國內需不足的根本影響因素」, 《河北經貿大學報》 2015,6, pp.27-37
- 劉翔峰 《亞投行加速人民幣國際化》, 中國經貿導刊, 2015, p.41-43
- 顧雄飛, 「安徽省加工貿易經濟效应的實證研究」, 安徽工業大學, 碩士學位論文, 2011, pp.33-34
- 何莎, 「安徽省對外貿易結構與產業結構關係研究」, 安徽工業大學, 碩士學位論文, 2013, pp.15-16

3. 홈페이지

UN Comtrade Database(<http://comtrade.un.org>)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한국수출입은행(<http://koreaxim.go.kr>)

세계은행 홈페이지(<http://www.cepii.fr>)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http://chn.mofa.go.kr>)

www.mofcom.gov.cn 中國商務部

www.troagri.com.cn 產業論壇

www.ce.cn 中國經濟網

www.customs.gov.cn 中國海關 叢書

부록

1. 한국 TSI, MAC, CTB의 분석한 데이터

2008년-2015년 한국의 對중국 품목의 수출입액

(단위: 억 달러)

	85		84		72		90		73	
	수출액	수입액	수출액	수입액	수출액	수입액	수출액	수입액	수출액	수입액
08년	253	200	102	76	36	142	123	19	8.6	31
09년	245	170	94	69	36	42	149	17	9.9	29
10년	330	218	144	87	38	63	212	29	9.4	33
11년	342	260	158	96	43	86	230	38	9.6	39
12년	394	241	128	94	36	74	238	40	8.7	40
13년	481	263	143	95	36	68	218	36	10.3	36
14년	512	284	148	105	39	89	204	41	10.6	35

자료: UN COMTRADE

2008년-2015년 한국의 對 세계 품목의 수출입액

(단위: 억 달러)

	85		84		72		90		73	
	수출액	수입액	수출액	수입액	수출액	수입액	수출액	수입액	수출액	수입액
08년	983	628	455	406	213	358	286	126	91	63
09년	888	535	382	344	155	184	293	105	80	61
10년	1,108	631	520	476	218	249	378	151	77	67
11년	1,185	697	597	493	276	284	365	170	117	74
12년	1,191	669	590	464	254	238	376	186	125	78
13년	1,355	723	593	474	223	204	359	172	112	85
14년	1,382	751	631	488	239	219	359	178	127	87

자료: UN COMTRADE

2 중국 TSI, MAC, CTB의 분석한 데이터

2008년-2015년 중국의 對한국 품목의 수출입액

(단위: 억 달러)

	85		84		72		90		73	
	수출액	수입액								
08년	188	377	83	110	138	40	18	164	26	11
09년	168	357	75	98	39	41	19	163	22	11
10년	200	486	87	151	62	42	30	231	26	12
11년	235	550	88	171	84	47	42	252	30	12
12년	298	656	85	142	70	41	44	247	31	11
13년	341	770	89	157	65	40	42	236	27	13
14년	370	767	91	175	83	43	41	223	28	12

자료: UN COMTRADE

2008년-2015년 중국의 對세계 품목의 수출입액

(단위: 억 달러)

	85		84		72		90		73	
	수출액	수입액	수출액	수입액	수출액	수입액	수출액	수입액	수출액	수입액
08년	3,421	2,665	2,687	1,388	535	245	433	777	484	105
09년	3,011	2,438	2,360	1,237	135	278	389	670	338	89
10년	3,888	3,143	3,098	1,722	289	253	521	899	391	92
11년	4,458	3,510	3,538	1,993	399	284	607	991	512	102
12년	4,873	3,815	3,759	1,820	371	233	726	1,061	562	101
13년	5,613	4,394	3,832	1,706	386	213	745	1,076	573	104
14년	5,709	4,243	4,008	1,794	555	212	740	1,058	607	118

자료: UN COMTRADE

<ABSTRACT>

The Impact of Korea's Exports to China on Growth
Slowdown of China Economic

Zhijun, Xie [해지군/解志軍]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Yun-Seok, Hur

Korea and China signed an FTA at November 10, 2014. According to FTA, the Chinese market is more open to Korean enterprises, so the latter will get more advantages in exporting to China. The trade volume of the two countries will further increase, but recently Chinese economy becomes more and more obvious. According to the data from Chinese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it shows that, in 2015, Chinese economic growth rate is 6.9%, which is the lowest since 1990. So this study focuses on the impact of the slowdown in Chinese economy on Korea's exports to China and Korea's solutions. In the study, it firstly shows the current status of Chinese economy, the prospect of its future development, the slowdown in Chinese economy, the falling proportion of Chinese processing trade, and the variation tendency of competitive relation about main trade goods between China and Korea. And then, it analyzes the impact of the slowdown in Chinese economy on Korea's exports to China and Korea's solutions. Trade Statistics System of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KITA) and UN COMTRADE is leveraged for this analysis. Meanwhile, this study makes full use of Index Analysis of TII(Trade Intensity Index), TSI(Trade Specification Index), MCA(Market Comparative Advantage) and CTB (Contribution to the Trade Balance) in order to analyze the trade link and the competitive relation about main trade goods between China and Korea.

Key Words : Slowdown in Chinese Economy, Proportion of Processing Trade , Trade Intensity Index, Contribution to the Trade Balance, Trade Specialization Index, Market Comparative Advantage